朝鮮日報
夕刊
二十七日(水)
本紙朝夕刊十二面

墺太利의獨裁化로 伊墺國境大緊迫

불좌ㅣ노地帶에伊軍二萬五千

國境旅行者嚴檢査

【維也納二十六日發同盟】伊太利國境에서온 情報에 依하면 伊太利政府는 슈슈닉首相이 親伊의 護國團 首領 슈탈헴벌公을 內閣으로부터 放逐하고 着着 獨裁制準備工作에 邁進하고잇는데 對하야 異常한 關心을 示하고 墺太利의 新事態에 處할 對策으로 이미 國境브렌넬고개一帶의 防備를 强化하기로 決定하고 마츰내 近近 一、國境불좌ㅣ노地方駐屯部隊二萬三千을 二萬五千으로 强化하고 다시 一、南티롤地方에 四千名으로된 特別파시스트民團軍을 編成派遣할 方針을 決定하엿다고 解釋된다 一方 伊墺國境을 通過하는 旅行者에게 對해서는 伊太利側官憲은 一一히 嚴重한 檢査를 行하고잇서서 今次 슈슈닉首相의 態度如何로는 伊墺國境은 一九三四年七月의 돌프스首相暗殺事件以來의 緊迫狀態를 現出할것이라고 憂慮되고잇다 (寫眞은 伊首相)

伊軍當局의 辨明

【羅馬二十六日發同盟】伊墺國境方面의 軍備强化 特히 南티롤方面의 파시스트軍의 擴充은 墺太利國內政局의 動搖에 鑑하야 各方面으로부터 不少한 注目을 끌고잇는데 伊太利軍當局은 國境方面의 軍備擴充에는 何等特別한 意味는 없다고 說明하야 如左히 言明하엿다

一、伊墺國境方面의 兵力은 不慮의 事件防止의 目的으로서 이미 相當히 强化되어잇는것이오 特히 今日이 兵力을 增派한 事實은 업다 勿論昨年十一月以降休暇로 任地를떠낫던 兵은 相當한數에 達하는데 此等歸休兵이 任地에歸還한데 不外하다

一、파시스트民團軍이 增加한것은 全國의 파시스트黨員을 民團軍에 編入한 結果이오 伊墺國境에 限한것은 아니다

白國上院總選擧結果

【브랏셀二十六日發同盟】白耳義上院總選擧는 二十四日 下院과 同時에 擧行되어 直接比例代表制에依한 下院定員의 半數百一名이 選擧되엇는데 二十六日開票한結果카톨릭黨은上院에서도慘敗하야 렉스黨、프론티스트로共和黨의 新興政黨은 顯著한 躍進을 表示하엿다 各派別은 如左하다

當選者 一〇一名 內譯

카톨릭黨	三四名	(八名減少)
自由黨	一一名	(增減無)
社會黨	三九名	(增減無)
프론티스트로	五名	(四名增加)
렉스黨	八名	(八名增加)
共産黨	四名	(四名增加)
上院	一六七名	(四四名再選)

上院은 六月七日 地方縣會議員에 依하야 選擧되고 남은 二十二名은 上院에 依하야 選擧될터이다

社說 退職積立金法案

退職積立金法案은 廣田內閣이 今期議會에 提出한 唯一한 社會立法이다。이法案은 事業主가 그使用勞働者의 在職中의 賃金의 一部를 積立 하엿다가, 退職、解雇、死亡時에 出給한다는 制度로서 이른바 退職手當制度를 法制化하야 一面 勞働者의 安定을 期하고 他面 勞資協調를企圖하야 勞[illegible] 이法案은 [illegible] 反對가 잇섯스나 原案을 修正하야 貴衆兩院을 通過하야 成立을보게되엇다。이제 그內容을 簡單히、紹介하기로한다。

◇

五十人以上의 勞働者를 使用하는 工場、鑛山等의 事業主는 (一)勞働者의 賃金에서 百分之二의 金額을 出給日마다 控除하야 積立하엿다가 (但 六個月以內의 期間을定한 雇傭이나 一個年以內의 季節的雇用에는 適用치안음) 勞働者의 退職、解雇、死亡時에 出給한다。이境遇以外에도 疾病、災害等 不得已한 境遇에는 積[illegible] 期間末에 勞働者의 그期間中의 賃金의 百分之二를 退職手當積立金으로 積立한다。但 災害等不得已한 境遇에는 行政官廳의 許可를어더 積立치안코도된다。[illegible](三)事業主는 [illegible] 積立金外에 [illegible] 使用人인때에는 [illegible] 年百分之五의 金利를 [illegible] 部分의 十分之一限度에서 事業主가 [illegible] 一年의 [illegible] 百分之六十이 五千圓을 超過할때에는 그超過金額의 十分之一限度에서 [illegible] 在職中인勞働者에게對하야 그期間中의 賃金의 百分之三을 [illegible]

◇

退職手當金의 積立은 [illegible] 所定에依하야 [illegible] 하야 郵便貯金、銀行預金、金錢信託、有價證券等의 方法으로 하되 事業主가 [illegible] 따 利子定率을 定하야 行政官廳의 許可를 어드면 手當積立金을 運用할수잇다。退職手當積立金엔 [illegible] 差押치못한다는 規定이잇고、積立金의 [illegible] 又는 擔保로 提供할수업다。各府縣에는 地方退職積立金審査會를 設置하고、內務省社會局에는 中央退職積立金審査會를 設置하되 同[illegible] 代表하는 者와 [illegible] 退職手當積立金、退職手當을 [illegible] 事業主의 [illegible] 審査會에 [illegible] 民事訴訟을 提起할수잇다。다만 審査會의 審査를 經由하지안코、民事訴訟을 提起할수는업다。그리고 事業主의 許可업시 退職手當積立金、又는 準備積立金을 處分한때에는 三年以下의 懲役、又는 三千圓以下의 罰金에 處하고、事業主가 本法에 違反한때에는 各其所定事項에따라 千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는 罰則이잇다。[illegible] 日本[illegible] 하고잇[illegible] 라고 [illegible] 하므로 [illegible] 그리고 [illegible] 고 [illegible]

國府外交陣刷新

駐蘇大使更迭을契機로

【南京二十六日發同盟】南京政府는 現駐蘇大使 顔惠慶氏를 更迭하기로 決定하엿는데 後任은 目下 外遊中인 王正廷氏說이有力하다 그런데 이實現과同時에 張群氏는 在外大公使의 大大的更迭을 斷行하야 外交陣의 刷新을 圖할意向이다

日濠關係益惡化

【東京電話同盟】濠洲政府가 實施한 綿布人絹等에 對한關稅引上、輸入許可制度가 日本官民各方面을 刺激하야 日本의 輿論을 硬化케하고잇는데 濠洲政府는 右措置는 英國産業의 保護를目的으로한것이오 日本品에는 큰影響이업다고 辯明하고 랑카시아方面도 이를 支持하고잇는데 二十六日 村井시드니總領事로부터 外務省에 達한 報告에依하면 事實은 全혀 反對로 日本品은 거의 輸入禁止와 同樣의 運命인것이 明白하게되엇다 即 日本品을 取引하는 濠洲各商社及在濠日本人各商社等이 憂慮하는바에 依하면 一、綿布、小麥粉袋製造用의 綿布는 除外되엇스나 그數量은 僅少한 것으로서 日本綿布는 全然 輸入不可能이 될것이다 二、人絹、濠洲側은 人絹製에關해서는 全部 日本에 輸入特許를 與할것이므로 從來 輸入되고잇던 米國品을 驅逐하는 까닭이다

北中密輸問題로 英米共同戰線!

外務當局의見解

【東京電話同盟】米國及濠洲의 對日通商戰線은 彼等의 所謂 北中에잇서서의 日本의 密輸問題를 口實로 英米의 提携를 發露한것이라고 信憑되는 情報에 日本外務當局은 異常한 關心으로써 推移를 注視中이다 即 去二十五日 이든英外相이 下院에서 北中密輸問題에 對한 英國政府의 態度를 宣明하고 英米의 共同工作에 依하야 在中權益擁護에 當하겟다는 旨를 强調하엿는데 때를 가티하야 헐國務長官은 日本이 北中에 密輸를 敢行하야 米國商權에 打擊을 與하는以上 米國도 報復的措置를 講究할 用意가잇다고 聲明하고 米中銀協定及 最近의 日米綿布協定決裂에 對하야 報復措置가 第一步이라는 態度를 明示하엿다 英國이 濠洲를 强歇하야 日本綿布關稅를 引上케한것은 랑카시아의 要望대로 動한것이며 루ㅡ즈벨트大統領이 關稅法 第三百三十六條를 發動케한것은 來大統領選擧對策때문이엇음에도 不拘하고 英國은 그商權威力을 보이는 同時에 이를 北中의 彼等의 所謂 密輸問題에 關聯시키기로 되어 報復措置를 高揚强行中이다 그러면 大體北中密輸란 것은 日本의 勢力下에 行하고잇느냐? 冀東 政府의 正當한 四分關稅를 指目하야 密輸라고 한다면 英國勢力下에잇는 西藏關稅는 무엇이며 廣東의 關稅는 무엇이나 蘇聯治下에잇는 外蒙關稅는 무슨 名稱으로써 부를것인가 外務當局은 從來 再三 日本의 北中關稅의 說明에 依하야 英米兩國도 近近 正當한 諒解에 到達할것을 期待하고잇스나 英米兩國 勢力下에잇는 全世界의 領域에서 日本商品을 不當히 壓迫하는 現狀에잇서서 日本商品의 最高進路는 다만 東亞天地뿐이라는 決意를 示하고 世界市場의 自由開放을 要求하는一方 世界市場封鎖에 對抗할 措置로 中國市場確保를 爲하야 最大努力을 繼續하기로 決定하얏다

人事·集會

▲美座流石氏(平北知事)新任人事次二十七日來社

▲古庄氏(新任京城稅務監督局長)五月二十七日 午後七時二十五分京城驛着列車로 單身着任

▲上內彦策氏(平南知事)三十日午後三時半京城驛發赴任

▲丹下郁太郎氏(警務局保安課長)三十日午前七時四十五分着任

▲山本義一郎氏(全南警察部長)三十日午後三時京城驛發赴任

▲金秉旭氏(中樞院通譯官兼書記官)六月二日 午後三時二十分着任

▲大竹十郎氏(內務局長)三十日午後九時五十分後京城驛着列車로着任

▲上瀧基氏(總督府審議室事務官)二十七日新任人事次來社

▲新貝肇氏(總督府人事課長)同上

八面鋒

◇ 政府나 政黨이나 남의흉내만 내엇다는것이 國同 淸瀨一郎 君의 特別議會感想。

◇ 흉내가 낫볼것이잇나 自己精神에 늘지못햇다는것이 多少 섭섭하지。

◇ 聯盟이 反省하지아니하면 歐洲의 獨裁國을 糾合하야 共同戰線으로 對抗하겟다고 伊太利가 큰소리。

◇ 賊反荷杖이란 이런품을 가르처서 하는말인가。

◇ 地中海問題와、에디오피아善後處置로 英伊가直接交涉을 하랴한다든가。

◇ 에디오피아는敗亡한대로 談判한번도못해보고 그만두는세음인가。

白耳義內閣 總辭職

【브랏셀二十六日發同盟】반제랑 首班으로한 白耳義內閣은 二十六日總辭職하엿다 右는二十四日의 總選擧結果 現內閣의 基礎이든카톨릭黨及 中央諸派가 敗北하고 右翼諸派인 렉크스國粹黨其他反對派의 勢力이 急擴張한 까닭이다

追加豫算 官報號外로公布

【東京電話同盟】特別議會의 協贊을 經한 昭和十一年度 一般會計追加豫算은 二十七日의 官報號外로 公布되엇다

積立法適用範圍

唯一의『社會』法案

衆議院修正으로五十名을三十名으로 明年一月一日實施

【東京電話同盟】內務省社會局이 現下社會情勢에 鑑하야 國民生活安定策의 하나로 勞働者의生活權確保를 爲하야 今議會에提案한 退職積立金及退職手當法案은 二十六日修正을加하야 兩院을 通過成立되엇는데 本法의 適用範圍는 衆議院의 修正에依하야 三十人을 五十人에引上한結果 適用事業數는

工場	五、八五四
鑛山	四一三
計	六、二六七

勞働者는

工場	一、一七六、二二五人
鑛山	二二二、八八〇人
計	一、三九九、一〇五人

에 達하고 此에 對한 積立金推定總額은 (單位千圓)

退職積立金年額	九、六八六
退職手當積立金年額	一五、九八三
計	二五、六六九

에 達할豫想이다 그리고 이것 實施에 際하야는 貴衆兩院의 附帶決議에 勅、省令에 規定할重要事項에 就하야는 調査機關을 設하야 關係各方面의 意見을 參酌하기로 되어잇스므로 政府는 頃 內務大臣을 會長으로한 委員會를 組織하고 委員에는 內務省其他 關係各省外에 貴、衆兩院議員及 事業主、勞働者雙方의 代表者等을 加하야 本法案의 重要事項을 諮問하고 昭和十二年一月一日부터 實施하기로 決定하엿다

辯護士試驗에伴한 規則改正及四府令

朝鮮辯護士試驗制度實施에 伴하는 朝鮮辯護士規則改正과 朝鮮辯護士試驗規則、朝鮮辯護士名簿登錄規則及 外國人辯護士認可規則等四府令과 辯護士試驗規則一部改正은 二十七日 總督府官報로써 公布하고、모다 來六月一日부터 施行하기로되엇다

英波海軍交涉 廿七日부터開始

【倫敦廿六日發同盟】英國政府는 波蘭과의 海軍協定締結交涉을二十七日부터 英國外務省에서 開始한다고 聲明하다 右協定은倫敦三國海軍協定과同樣 建艦通報及質的制限을 包含하는것으로解釋된다

米社會黨推薦의 正副大統領候補

【클리블랜드二十五日發同盟】米國社會黨은 二十五日 클리블랜드市에서 全國大會를 開催하고 大統領選擧戰의 候補者로 노ㅡ만토ㅡ마스氏 副大統領候補者로 죠지넬슨氏를 各其指名하엿다 그리고 選擧戰에 臨할 黨의 政綱은 二十六日 最後的審議를 經하야 決定을지울터이다

日本軍增强에對備 山西中央軍依然駐屯

【上海二十六日發同盟】共産軍을 討伐하기爲하야 山西에 派遣된 中央軍은 約五萬이라고 稱하는데 南京政府는 今回 共産軍의 山西退却後도 暫時 右軍隊를山西에 駐屯시키기로 되엇다 右는 共産軍의 再起에 備하는同時에 北中의 日本軍增强도 考慮에너허 萬一의境遇에 備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地方長官會議召集

【東京電話同盟】第六十九特別議會도 閉幕되고 昭和十一年度追加豫算及其他重要法案도 通過成立되엿스므로 政府는 來六月中旬頃 約一週間豫定으로 地方長官會議를 召集하고 此等豫算及法律施行에關하야 政府의 方針을 指示하고 그實施에 遺憾이 업기를 期하는同時에 來議會를 目標로 現內閣獨自의 國策을 樹立하야 新內閣의 使命인 庶政一新의 實現에 邁進할政府의 決意를 傳하고 各地方長官의 一大緊張을 促하기로되엇다

不穩文書取締法 實施準備에着手

地方長官及警察部會議召集코 內容趣旨를訓示指示

【東京電話同盟】言論彈壓이라하야 衆議院의 全面的反對를 受한 不穩文書等取締法案도 現下非常時局에 應한 臨時立法이라는 趣旨를 明白히하고 大修正을加한後 겨우 二十六日 兩院을通過하야 成立을 보게되엇는데 內務當局保安課에서는 陸軍及司法當局과密接한 連絡에 그實施準備에 着手하야 [illegible] 本法修正에 依한 取締上의 缺陷에 對하야도 現行法令의 運用에 依하야 此를 補足하려고 愼重한 協議를 遂行하기로 되엇다 그러나 本法實行期日은 公布日로 定하엿스나 法의內容趣旨를全國警察官에 周知徹底시키고 其他 諸般準備를 整備하는데 多少의 時日을 要하므로 來月 中旬 地方長官會議及 警察部長會議를 召集하야 그席上에서 그運用에 關하야 十分 訓示及 指示를 與한後 戒嚴令撤廢關係等을 考慮하야 此를 公布實施할 豫定이다 그리고 不穩文書取締를 爲하야 今年度追加豫算經費九萬五千圓을 計上하고 承認을바덧스므로 此에 依하야 七月一日로 全國各府縣에 不穩文書專任警部及警部補를 增員하야 不穩文書取締를 斷行하기로하엿다

아라비아人到處 警官隊와衝突!

種族鬪爭이叛亂化!

目的達成까지抗爭繼續을宣言

【예루살렘二十二日發同盟】팔레스타인의 亞剌比亞人과 猶太人의 騷擾는 英國官憲必死의 努力에도 不拘하고 드디어 惡化될 徵兆가잇는데 各處에서 亞剌比亞人暴徒는 軍隊警官隊와 衝突하야 流血의 慘劇을 演出하고잇다 나자레스東方아포올山에는 二十六日午後 暴徒鎭壓에 向한 警官隊는 優勢한 亞剌比亞人의 反擊을만나 드디어 後退할수밧게업시되고 同日 하이파의 北方 마카市에서는 土木技師一名이 兇漢에게 殺害되엇다 西南方地方의 要衝가자의 亞剌比亞人이 蜂起하야 아직 終熄되지안코 同地居留英國人은 모다 警察署에 避難하게되엇다 亞剌比亞人全國委員會는廿六日亞剌比亞人의팔레스타인이 實現되기까지는 끗까지 抗爭을 繼續한다」는旨의宣言을 發表하고斷然抗爭할決意를明白히하고 盛히氣勢를 올리고잇는 現狀으로 暴動은 마침내 全國에波及하야 今後의 推移는 全혀豫斷을 不許하는形勢가되엇다

【예루살렘廿六日發同盟】亞剌比亞人暴徒는 廿六日朝來 各處에 電話線을 切斷하엿다 이때문에 예루살렘市와 카이로間의 電話連絡은 廿六日正午以來 杜絶되게되엇다 그리고 亞剌比亞人暴徒는 北方의 要衝나블스市附近에서도 蜂起하야 附近丘陵에 依據하야 게릴라戰的狙擊戰法으로 英軍과 警官隊를 괴롭게하고잇다 나자레스市의南方 제스레르市와 南部레호호로市에서도亞剌比亞人暴徒는 猶太人農園을 襲擊하야 漸次 反亂의 性質을 띄게되엇다고 傳한다 팔레스타인政廳當局은 情勢惡化에 鑑하야 各地方의 猶太人移民에 對해서는 適宜 自衛의 手段을 講究하도록 命令하엿다 一方가자市居留 英國人은 同地警察署에 避難하엿다고 한다

政友新任員決定

黨廓淸을目標로

地方本位로부터人物本位로 二十八日議員總會서

【東京電話同盟】政友會에서는 特別議會終了와함께 任期滿了하는 幹部를 改選하야 陣容을 整備하려고 來二十八日本部에 議員總會를開하고 新役員을 決定하기로되엇는데 議會末期에 表面化한 黨內의 中堅人物을 中心으로한 有志代議士의 黨廓淸運動은 新役員人選方針에 反映하야 此等有志代議士의 要望을 全然無視하고 旣定方針을 强行하는데에는 今後統制에도 滋味업는 影響을 波及할것으로 黨一致 自肅自戒로써 非常時打開에 協力하려는 氣運이 生함은 必然的現象이라 黨首腦部도 此等有志代議士의 要望을 어느程度까지 容認하야 黨의中堅幹部인 總務에 關하야도 從來의 地方團體는 全然 無視치는안으나 人員을減하야 有力한 士로써 充當하려한다 則從來東海 北信과가튼 三團體로부터 一名을選出하기로하고 地方團體의選出에서는 各團體로부터 一名乃至二名의 幹事를選出하야 것도從來와가티 當選 議會의 所謂一年生으로써하지안코 中堅黨員을、充當케하는等 現行制度와 有志代議士의 要望을折衷한人物로 이新方針下에 新總務를人物을 如左하다

幹事長 安藤正純

總務(關東) 鳩山一郎、中島知久平(或은前田米藏氏中一名)

(東北) 東武(又는 堀切善兵衛)

(北信、東海、近畿) 山本條太郎(又는濱田國松)

(中國、四國) 若宮貞夫

(九州) 松野鶴平

閉院式擧行

廣田首相勅語奉讀

【東京電話同盟】第六十九議會는 會期延長後 二十六日로써 終了하엿슴으로 皇室儀制令의 所定에依하야 二十七日 貴族院에서 閉院式을 擧行하엿다 當日 天皇陛下께옵서는 臨御하시지안코 廣田首相以下 各閣僚及近衛、富田、松平、岡田兩院正副議長을 비롯하야 各議員은 燕尾服 又는 陸海軍正裝、位階服에 勳章本綬를 佩用하고 登院 午前十時五十分後 式場인 貴族院本會議場에 入場하야、正十一時 廣田首相은 삼가 玉座에 向하야 最敬禮한後 內閣書記官이 捧持한 勅語書를 捧하야 閉院式의 勅語를 捧讀하옵는 光榮을 가지고 諸員最敬禮裡에 優渥한 勅語를 捧讀한다음 近衛貴族院議長은 勅語書를拜受하야 同五分閉院式을 了하엿다

勅語

【東京電話同盟】朕은 貴族院及衆議院의 各員에게 告하노라 朕은 今日로써 帝國議會의 閉會를 命하고 아울러 [illegible] 議員의 任을 다한 勞를 喜悅하노라

蔿年筆と金ペン
小賣店に デパートに 貿易に
(カタログ進呈 店印捺印者限)
(指定マーク 入請見ひ)
己辰製作所 大阪市東区山之下町一二九 電東94-六〇三一

夏物特提
摂津 水泳着 浴衣 帯地 加工藝 ウンド 靴下
南紡 送呈 見本 陳列
信保商店 大阪市東區唐物町四丁目

圍碁 大阪天王寺 山口賢石

轉寫マーク メリヤス靴下 金銀アイ各色 豐田轉寫工業所 大阪市東淀川區榮島町 電話北五八四二番

大流行射的キルク銃
特價提供 キルク銃
特製品三圓五十錢 其他射的用空氣銃 各種販賣
カタログ進呈
大阪市南區高津 常盤號銃店 振替大阪五〇二三

ウチワ 扇子 製造卸 城澤商店 大阪市南區高津一ノ二三 電話南二九九五 振替大阪七八九九五番

カレンダー 代理店募集
1937
東洋精版印刷 大阪天王寺區上汐町二丁目

ワイシャツ カラー
夏物品揃
和田シャツ製造所 大阪市東區釣鐘町九番 電話東一一九七 振替大阪八〇二四五番

瓦斯入林電球
朝鮮唯一의大工場
에서産出하는優良鮮産品
林電球製作所
京城下新堂町四〇九 電 本② 五二六一番
特約店募集

山下テント
金山大倉町
カタログ進呈

여러분의사랑하는子女들의우장옷은다ㅡ준비되엿습니다 雨季는일로부터올시다

雨衣都散賣
우장옷
雨衣雨覆シート防水布一切은如何한多量의注文에도應합니다

朝鮮防水布製所
商店配達自轉車用及作業用各種雨衣 牛男女用紳士用各種レンコート
京城光熙町 外新堂町
(定價表) 電話本③一〇二番 振替京城五三七六番

朝鮮醫文界の新照明
先づ既往の問題を個覽せよ!!!
昭和元年より昭和十年まで
◇定價金八十錢 送料書留十六錢 昭和十二年版
附警部考試試驗問題(十年間)
全科目問題及試驗規則 志願者手續、心得及 精選參考書
發兌 京城府水標町一ノ七九 朝鮮受驗研究社 振替京城一〇九〇番
朝鮮官界の登龍門 昭文試驗期日八月七日ヨリ京城中學校ニテ施行ト決定

朝報案內
開業就職
社員採用
自轉車用蓄電池 豊泉化學工業社

朝鮮劇場
東洋劇場
第一劇場

金剛山을中心으로 國際的遊園地建設

三防、長箭、海金剛에諸般設備도促進

尨大한宇垣總督의計畫

우원(宇垣)총독은 이번에 금강산(金剛山)을 구경하고 도라와서 금강산의 관광시설의필요를 력설하야 발서 금강산협회기타의 관계국과에 그시설에대한계획의 립안을 식히고잇다 그런데 총독자신의 금강산과 그일대의 명승경승(景勝)지의 관광적시설에 대하야 다음과가튼방대한 계획을가지고잇는데 예산관계도잇서 과연실현될는지 또는 실현된다하여도 언제될는지는몰르나 좌우간그계획이매우큰것이니만치 일반의주목을 끌을만한것이니 소개한다 ▲우원총독의 계획에 의하면 금강산을 중심으로 삼방(三防) 장전(長箭)해금강등 부근일대를 일대공원가티 시설할것을 목표로 삼방에는 가지설비가 완전한대국제『호텔』을 철도국에서설립케하고 삼방으로부터서 금강산까지에 탄탄한대도로를 개설하야『드라이부웨이』(散策道路)를 맨들고 삼일포(三日浦)에 잇는 호수(湖水)를개수하야 수영장으로하며 해금강과장전까지의 도로는물론 청원(淸原)에잇는 수리조목도 항의 대지수지는 겨울에『스케-트』장으로 맨들며 또기타『골프』장운동장등외에 오락시설등 모든설비를 금강산과그일대에 왕성케하는일방 인천(仁川)으로부터 철도를 부설하야 천하의명승금강산을 명실이서로갓도록 맨들어보자는것이다 그리하야 우선그제일긔사업으로 명년도예상에도 상당한 요구액이 나타날모양인데 과연실현될는지 그계획이방대하니만치 주목된다

朝鮮民族革命黨이 金九一派와對峙

七月五日創立記念日압두고 七十餘精銳分子活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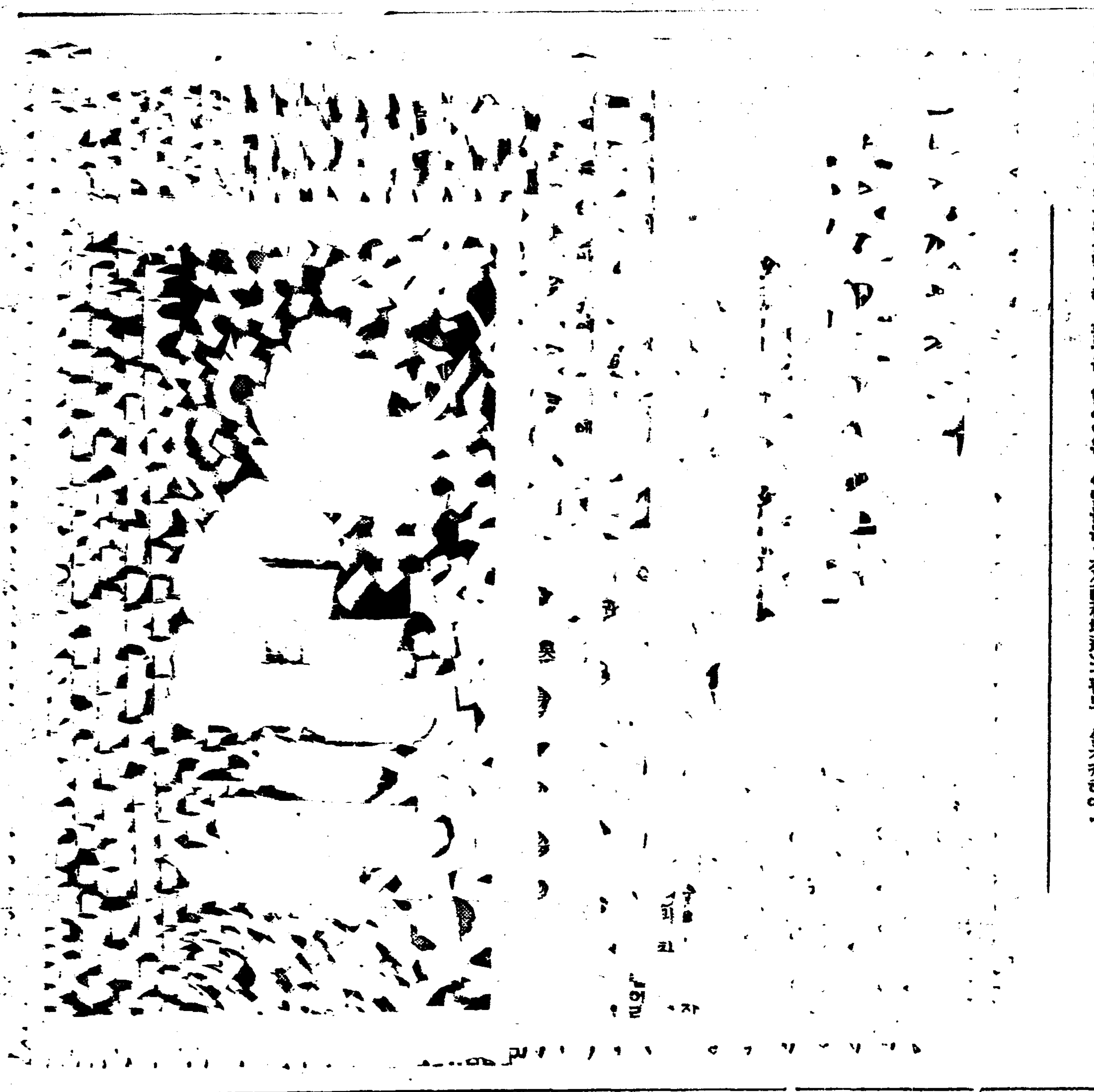
모처에서 들어온정보에 의하면 지난 오월구일오전 아홉시부터 상해법계려반로(上海法界呂班路) 최석순(崔錫淳)의집에서 조선민족혁명당(朝鮮民族革命黨)의 간부전긔 최석순등 다섯명이 일회하야 민족혁명당구대회(區大會)를 열고 당세보고와 금후활동방침을 토의하엿다는데 특히 벼두리 최근 김구(金九)일파가 공산주의자들과 손을잡고 각지에서 큰활동을하고잇슴에 대하야 이는 전연그방향이 민족혁명당의 그것과 상지되는것이라하고 야 이들세력에 대항하야 활동을개시하기로하고 그대책강구에 주력키로 결정되엿다는데 이는 해외에잇는 현재·민족주의세력이 공산주의자들과 합작하는것과 이에반대하야나가는 당파의 큰대립으로서 최근이방면이 주목할만한 현상이라고한다 도이미남경무관학교락양분교(南京武官學校洛陽分校)를 졸업한 민족혁명당의 칠십여명 첨예분자들이 북중국과만주 조선에잠입하야 착착맹활동중으로 그실적이현저하다는 당세보고가 잇섯고 금후사업으로 오는칠월오일민족혁명당 창립긔념일을 성대히 긔념할것과 긔관지를발행할것이 결정되엿다는바 이외가티당세를 정돈하는 민족혁명당과 이와대치되는 김구일파의활동이 금후큰주목을 끄으리라고한다

假刑事

시내신당정(新堂町)백칠번지의 백팔십사호에서 품파리하는 문내성(文乃成)(二〇)과 그동리 사백삼번지에서 과자상을하는 리

부처님降誕하신날

이십팔일은 음력으로 사월초팔일이어서 즉 석가여래(釋迦如來)탄생일로 해마다 불가(佛家)에서는 이날을 성대히 긔념하고 관등(觀燈)을하며 여러가지로식을 거행하게되는데 경성에서도 조선불교중앙교무원주최로 강연과음악과 연극등으로 이날을 긔념하기로 되엿다 (사진은 관등의[illegible])



面長은人物本位로 面職員等도優待

各道單位로共濟組合을組織

面行政刷新의基礎案

총독부·내무국에서는 조선에잇서 행정조직의 긔초적세포(細胞)조직체라할 면(面)행정의쇄신을도모하기위하야 면장이하면직원의 인사행정과 대우를 재래의 방침으로부터 일층개혁하는동시에 면직원의 대중원활단한 행할터이라한다 그내용을 드르면 다음과갓다 즉면장은 재래와가티 단순히지방의 명망가라든가 유력자만을임명치안코 행정조직의 긔초요조직체의 최고지도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할수잇는 신인물을 임명하는동시에 면장이하의 면직원의대우를 개선하야 재래와가티 면사무가 적체(積滯)함이업게한다는것이다 일방각도를 단위로 면직원의 공제조합(共濟組合)가튼 복리증진(福利增進)긔관도 설치케하야 그들박봉면직원의 생활안정을도모케한다는것으로 이미 이러한 계획은명년부터실시한 바도잇슴으로 금후이러한 방책을 각도에도 실시케할터이라한다

表面으론平穩하나 裏面엔依然險惡

被害者에對한學校處分을注視

京城農業刺傷事件續報

이십륙일 아침아홉시반쯤 되여 시내 청량리정(淸凉里町)에잇는 경성공립농업학교 오학년 화조(和組)생도 시야직희(矢野直喜)(二〇)가 소조(昭組)정태용(成鎭)(二〇)을 교실에서 란자하야 흔도케하고 가해자 시야는 그날 오후네시경에 소관동대문서(東大門署)에 류치되여 엄중한 취조를 밧고잇다는것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이러한 불상사에 당면한 학교당국에서는 이십칠일부로 전기 시야를퇴학처분에 부첫슴으로 사건은일단 경찰의손으로 넘어가버렷다 그럼으로 동교장야촌(野村)씨는 도모지 아무문제에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잇스며 일편 시내 뢰호의원(瀨戶醫院)에 입원중인 전긔피해자는 그후 경과가량호하야 지금 형편으로는 약이주일이면 완치될듯하다하며 학교당국은 피해자에게 대하야서도 엇더한 처분대책을 강구중인듯 하나 도모지회답을 피하고 잇스며 지금은다만 량편학생들사이의 공긔에 만단의 주의를 집중하고잇다하며 표면만은평온하게보이는조선학생들은 이피해자의 처분여하에 대관심을 집중하고잇다고한다

列車死傷兩件

▼……이십칠일 오전십일시십분경에 함경선(咸鏡線)의 신북청(新北靑)속후(俗厚)량역간에서 북청군 속후면광천리(北靑郡俗厚面廣川里)에 거주하는 김호수(金昊守)(六五)란 로파가 때마침 부를 타격하야 즉사하고

▼……또 이십칠일오전십시이십오분경에 동해남부선(東海南部線)남창(南倉) 덕하(德下)량역간에서 부산발울산행 제구백륙십오호렬차가 진행중 울산군청량면동천리(蔚山郡靑良面東川里)에 거주하는정기택(鄭基澤)(三五)이란로인이 뛰여드러 자살하엿다

이진에 홍백곳(紅白屋)에빠지 어잇지안코나고 무르며 그런사람은 업다고하니 당자곳자로방을 뒤집는등 소란하게하고 도라가는것을 이상히 녀인전긔주인이 신고에의하야 전긔두명은 체포되엿스나 남어지두명은 도망하고말엇다고한다

詐欺犯

【江華】 지난 십오일 개성좋이 잇서에서 조정석(趙貞錫)순사가 강화경찰서원의 나타나 어떠가지고 당일로 향촉을 게시하앗든바 손모라는 범인을 체포하야 그의일인 이친홍일 아침 개성으로 호송되엿는바 이제 듯건댄 모, 회사의 사면(寺面)방면으로 출장수사 류안(柳安)을 사고해다가 전매한것이 발각되엿다한다。

運動競技

今夏伯林올림픽大會에 朝鮮選手八名出場

第十一回 國際올림픽大會가 今夏八月一日부터 獨逸伯林大會에서 열리게되엿는데 朝鮮스포-츠界의 重荷를 지고 派遣代表選手로 決定된 朝鮮選手에關하야서는 日本內地의 各競技團體로부터 朝鮮體育協會에 正式通知가到着하엿는데 그選手는 다음과가튼 八名이 參加하엿슴으로 朝鮮體協에서는 積極的으로 이選手들을後援하기로되엿다 ▲마라손=孫基禎(養正高普)南昇龍(明大在學中)▲籠球=李性求 廉殷鉉 張利鎭(以上延禧專門)▲蹴球=金容植(普成專門)▲[illegible]=金永根(平[illegible])▲拳鬪=李奎煥(中東學校)

朝鮮留學生팀 豊國中學優勝 山口縣中學蹴球에

下關商業主催의 近縣中等學校蹴球大會는 지난二十四日山口縣長府에서 열렷는바 門司市豊國中學校의 朝鮮留學生 現役팀이 優勝戰에 드러가 山口中學을 六對零으로 이겨 優勝하엿는데 이날 出戰한 選手는 다음과갓다

▲第一回戰 山口中學1…0山口商業 ▲準決勝 豊國中學2…0下關商業 ▲決勝戰 豊國中學6…0山口中學

▲出場選手=李永奎、[illegible]

全滿競走大會에 朝鮮選手大活躍

【新京】第二回全滿洲都市對抗競走의新京吉林間 리레-新京驛前競走는 지난廿四日 午後二時부터 西公園正門前附近에서 一萬一千米突『코-스』에서 擧行한바 다음과가튼成績으로 朝鮮人選手가大部分入選되엿다

1、趙彬 四七分七秒 2、白昌燮 四七分三〇秒 3、外山平 四七分四二秒 4、李容鎭 四八分三五秒 5、方熹河 四九分五秒

法專對大邱醫專蹴球戰

法專對大邱醫專蹴球戰은 廿四日午前十一時부터 京醫코-트에서 第三回戰을行한바 二對一로大邱醫專이 勝利하엿다고한다

全朝鮮固定庭球

日本庭球協會 朝鮮支部主催의第二回全朝鮮固定庭球大會는 來三十一日 午前九時半부터 漢江人道橋下『코-스』에서 擧行할터인데 [illegible] 六團體가 參加하엿다한다

高跳에世界記錄

【뉴-욕】『올림픽』年에 아메리카·쥬-니어A、A、U陸上競技會는 지난廿三日뉴-욕크『란달스』섬에서 擧行한바 조지아大學의『포레스트·타운스』選手는 百十米障碍에 十四秒一의 世界新記錄을 樹立하엿다한다

綠陰! 勝景!

녹음이욱어진첫여름

단락은「신흥사경외

유원지」로오시라

금반경외유원지를신설하옵고여러분의소요와단락

에만족을드리려하오니만히리용하여주시옵소서

新興寺·境外遊園地

東小門外新興寺(동소문밧신흥사)電光二九七八番

梨花學校五十周年記念

시내정동에잇는 리화녀자전문학교(梨花女專)와 녀자고보 유치원의 창립오십주년긔념식(梨花學校創立五十周年記念式)은 이십일일오전열시부터 정동정(貞洞町)리화녀고교정(梨花女高校庭)에서 성대히거행한다는데 이식이끗난뒤에 오후한시부터는 긔념전람회(記念展覽會)를 열어서 조선녀성교육의 반세긔의긴세월에 [illegible] 보여주리라하며 장내에는 가사실 수예실 마름실 성서실 공작실 조선어실 지리실 력사실(歷史室)등이잇서 선생과학생들의고심한 결과를 일반에게 보여주리라하며 일반의래관을 환영한다고한다

頻發하는土兵亂에 長白縣民極度不安

拉致된지一年만에徐氏의長子는被殺

두아들은萬圓주고、겨우生還

【咸興】작년팔월경 장백부(長白府)의 시가지에 들어와 백주에 농회장(農會長)서성국(徐聖國)의 집에서 동회장의아들 삼형제를 빼아서갓든 사건은 당시에 보도한바어니와 그후그삼형제를 랍거(拉去)한 토비 등산호(登山好)의일대는 무송현마강(撫松縣馬鞍)방면으로 돌아가든도중에 장자(長子)는 죽이고 남은두아이는 아직까지 감금하고 잇든중인데 그동안 서(徐)동회장은 극력으로 그구출(救出)운동에분주하든등에 며출전 동현대북구(大北溝)에가서 몸갑 일만원을 주고 차저왓다고한다 별보=십삼도구경찰서(十三道溝警察署)국(鞠)서장이하 십이명은 지난이십일에 동현십삼도구이도하자(十三道溝二道河子)문명군(文明軍)의일대를 토벌하려고 갓다가 별서 다라나고업슴으로 동지방주가 십여호를 태워버리고 돌아왓다는데 장백현일대는 빈번히 전하는토병란(土兵亂)으로극도의 불안에싸혀잇다

食刀와假拳銃갖고 豪農을威脅請金

장농을부시고現金十圓强奪

坡州郡下에强盜出現

【坡州支局電話】이십륙일 새벽한시쯤되여 파주군 탄현면 성동리(坡州郡炭縣面城東里)이백삼십륙번지 호농(豪農)리만복(李萬福)씨의 집에 강도세명이 한자는 흰옷에 식칼, 한자는 양복에 검정옷에 식칼을 가지고 벽돌을 넘어드러가서 때마츰 곤히 잠들고잇든 주인리씨를 깨워 일으킨후 가젓든 무기를로 위협하면서 벼란돈을 내노흐라고 강요햇스나 돈이업다고 거절하자 그들은 한부로 장롱을 깨트리고나서 그속에 감추어두엇든 현금십원을 강탈해가지고 만약 경찰에 이사실을 알리는때는 큰화를바 드리라는 한말을 남긴채 드러왓든 대문으로 나가서 연기처럼 곳 종적을감추고 말엇다。그리하여 이급보를 바든 소관파주서(坡州署)에서는 서장이하 전서원이 사면으로 철통가튼경계의 그물을 펴노코 그들을 잡고저 활동을 시작햇스나 아직가태서는 단서를 못잡은 모양이다

白晝路上에서 阿片을密賣

現場에서犯人逮捕

시내서소문정(西小門町)에서 백주에 아편밀매를 하다가 도뎡 산동성위해위(山東省威海衛)에두고 시내서소문정(西小門町)구십번지에사는 량성원(梁成元)은 금이십칠일 오전열한시반쯤에 전긔장소에서『모루히네』환자를 상대로 밀매하는 현장을 서대문서원이 발견하고 그자리에서 체포하는동시에 관두개와 흡연구한개 기타다수한 아편을압수하엿다

天氣予報

概況 七五二『미리』의低氣壓은 滿洲에잇스며 七五八『미리』의低氣壓은滿洲의南部海上에 잇다 高氣壓은 日本의南東海上에七六四『미리』를보이고잇다 南滿洲와 北鮮은 大槪 말라 南朝鮮과 裏日本은흐리고 表日本은 降雨가잇다

豫報 오늘밤 京城地方은개엿다흐렷다하며 明日도갓다 京城全區도갓다

昨日 最高 二十度五
同 最低 十一度二
今朝 最低 十一度六
今日 正午 二十度三

蔘茸精

高速度血液補給 補陰補陽 強壯新藥

이약은 사람이생기면서신농씨(神農氏)가 여러백가지풀을스스로맛보고 창조하실때 사람의百病을다곳치고 그수명을오래가게하는약으로 [illegible] 人蔘과 [illegible] 現代에가장완전한方法으로 [illegible]

이라고하는 가장理想的이요 도效力이가장이빠른補血強壯劑이다 不老長生을爲하야 [illegible] 不老不死藥인人蔘을求하엿는데 [illegible] 所謂現代文明病이만어서自己가活動코자하여도못實行하고 [illegible] 元氣가旺盛하야 [illegible] 老衰를防止하고 [illegible] 蔘茸精은 到底히他藥에서求할수업는 最新最高速度強壯劑이다。

藥價 [illegible]

人生에가장苦痛을주는淋疾을根治하시라

淋疾藥界의覇王トリパリン

初期에는 治療에念慮하다가慢性이되면 苦痛이 甚하지안음으로 完治된줄알고 放心하기쉬운病이다 淋疾은 慢性이될사록 안알호며그다음에는睾丸炎副睾丸炎을 일으키고婦人은 赤白帶下症其他 症이되는것이다 本劑는 最近獨逸에서 最新發明한 高貴藥을直輸入하야 主劑로하고 特히秘藥을 만히配合하엿슴으로 在來의銀劑나 白檀油劑의作用에 比할것이아니다 淋疾에附用藥을써도 無效하시라 トリパリン은 尿道粘膜의 殺菌作用은勿論이요 長服하시는대로 深部淋菌及體球의 破壞가確實함으로 아모리慢性된淋疾이라도 再發될念慮가 絶對로업고 더구나 淋疾藥界의大缺點인 胃腸의障碍가업시 完治될自信잇는 新界의最新劑이다

藥價 [illegible]

나로-ナロ-

고급급만성위장약

조선에서 가장만흔병이속병이다 열명이모히면 아홉명은속병의경험자 혹은현재꺼ㄹ하는체중환자이다 그러나 이병은 외모로보아 대소롭지안음으로 그냥두거나 그럭치안흐면 갑산매약쯤으로 일시일시피할뿐이요 근치는못하고 결국은 만성체증에서 헤매게되는것이다 일차체증에 걸리면건강하든사람도 점점쇠약해지고 음식을차차로 못먹게되고 음식맛이업고 조금먹어도잘체하며 꺼ㄹ꺼ㄹ하며 배가압흐거나 명치가압흐고 쓰리고 쥐여뜯고 달리고 내리지안코 무엇인지가슴을치밀고신물이오르고 울렁울렁하고 수족이나른하고 식곤증이나고 신트름이나고 헛방귀가나고 대변에시간이일정치안코 [illegible] 용긔를다시나시고 신약『나로-』를복용하야 어드시라 단연코효과할것입니다 마염에효력이업스시거든 약을도로보내시라요 청구하시는대로수용하겟습니다

藥價 一週日分壹圓 十五日分二圓 二十二日分四圓

嬰兒丸

영아환

貴重한어린이 病에特效한家庭常備靈藥!

子女는生產하는이보다 실업시잘길너야만참으로내子女가됩니다 完全히成育하자면 [illegible] 小兒의生命水며 第二어머니와가튼영아환을 家庭에常備하야두시요 경풍 몸드러운데 기침하는데 마식체 보채는데 구역질 소화불량 위장약한데 두통누는데 신체허약한데 테머리로아푼데 외에도소아에게第一조흔

藥價 四十錢 五十錢

以上藥은日本全國及滿洲全國有名藥店에서販賣함

京城府授恩町三二

總發賣元 朝鮮商會

電光(二)一七八五·振替京城一〇四八六番

이로부터 仁丹의 活用期!

胃腸

胃腸이 약분분은 食後에 반드시 仁丹을 四五粒常用하시면 消化機能을 調整、食慾을 促進하며 榮養을 增進식힘으로써 全身에도 반드시 好調!

清涼

仁丹의 가장普偏的用途는 精神을 爽快하게하는 唯一한清涼劑로써 어며 旅行과混雜中映畵나 觀劇의鑑賞、病院이나 病慰問에는반드시携帶!

頭痛

頭痛과 眩暈氣鬱한時仁丹二三粒을잡수면 氣重과頭痛을막으며 健忘症을醫하며頭腦를明晰、記憶力을 增進하야참으로 晴快한 頭腦를직히는!

健康

仁丹을常用하시면 榮養을도으며 氣力이增進元氣가膨脹 모ー든스포ー츠에仁丹이 活用되고잇는그까닭、執務나勞働의能率增進도그때문!

無病의분에도 必要

仁丹은人体의活動元基호루몬과榮養要素피타민을含有하얏슴으로精氣의增進、体力의充溢精神의明快等、全身的의增健効果를發揮하는故로無病의분에도 꼭仁丹의常用이必要!

銀粒仁丹

●家族用에 携帶에 便利하고德用
家庭容器瓶入 五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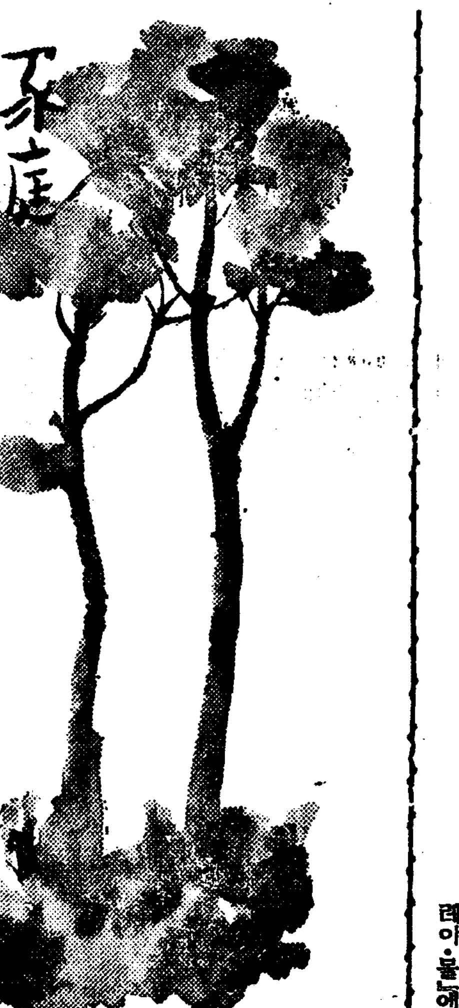
仁丹의主効

胃口不開 食積不消 心神過勞 日火氣臭 胃火脘疼 惡心嘔吐 精神鬱結 船車暈醉 頭痛目眩

〔藥價〕

御試用分	(百五十粒)	十錢
富士容器附	(三百二十粒)	二十錢
滿洲容器附	(四百粒)	三十錢
家庭容器瓶入	(九百粒)	五十錢
御德用分	(一千粒)	五十錢
日滿容器附	(七百粒)	五十錢
御德用瓶入	(二千二百粒)	壹圓

仁丹本舖 森下博營業所



괜이 미움밧는 "뱀" 좀더 사괴어 불일

독사에게 물리면큰변이나 그고긴즉 천하일미다

우리 인류(人類)가 이세상에서 내로라고 뽐내고 살기전 아조 네도 옛날인 태고시적에는 뱀종류가 방자스럽게도 횡행하얏더랍니다. 즉 인류가 인류노릇을 하기까지가장큰 장애물도 뱀종류요 가장큰 대적도 뱀종류엿든것입니다. 그러니 여러저러서뱀종류에 대한 인류의 전쟁이일어낫것 아니겟습니까? 구경 인류가 이기는 이기엇스나 인류의 희생인들엇지적엇겟습니까? 그 관계로인해서 우리들은 한편으로뱀을원수 도하고 또다른 한편 으로 뱀을 무서워 하는 것이랍니다. 뱀뿐이 아니라 그 종류에 속하는 도마뱀이라든가 자라든가 모든 동물에 대해서 그러한 감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것이 거대동물학자의 설명이오나 과연그러지 안 그러지는 물론증명할 길이 업습니다. 단지

여름날 강가나 덜판으로 나다니는것이 몸에도 조코운치에도 조흔일이나 꽉한가지 께름직한것은 그 숭칭스러 뱀을맛나기 쉬운것입니다. 누구라고 뱀이보기 조흘것 은아니로되 그중에도 심한분은 뱀을보기만 해도 몸서리를치고 긔운을 펴서 못 합니다. 그러나 뱀은 영물이니지킴이니하야 죽이지를못하게 말리지안습니까? 심지어 사람에게 큰해를끼치는 독사종류까지도 피해 버릴지언정 죽이려고는덤지도못하지 안습니까? 이기회에 뱀에대한 이야기를 잠간 소개하겟습니다. 하이킹이나 피닉을 나가시는 분들께 한참고가 되올듯 보우 두시기를 바람니다

뱀자체의 생김생김부터가그다지 이쁘거나 곱다고는보기 어려운만큼 그러한 려사적관계이외에도 자연히실혀보인다는 것만을 말하야둡니다

×

물론 뱀중에는 유의한 동물을 해치는 것도 잇고 또 독사가튼 것은 사람까지 살해하야 페해가 적지 안하나 밥븟이 유해한 동물은 아닙니다. 유해한 동물을 업새어서 도리혀 유의하게 되는 수도 잇슬뿐이 아니라 여러가지로 단물가치쓰이는 곳이 적지 안습니다. 위선 뱀의 고기는 천하의 일품이라고하는데 어듸보담도 중국광동지방에서는 뱀미삼아서 아조 맛을드리고잇습니다. 그이외에도 그 기름은공업용(工業用)으로 아조 훌륭하고 그가죽은 당배스갑이나 단장가튼데 입히어 널리 쓰이고 잇습니다. 물론 지킴이라는등 또 영물이라는등 하는것은 미신이라 본래 미듬것이 아님을 미더가지고서 뱀을 위할것은아니오나 현대과학에 비치어 뱀에대한 감정을 새로이 고치어가질 필요는잇슬줄압니다. 단지 뱀의 고기를 만히먹으면 안력(眼力)이 상당한답니다. 속담에 이른말을 곳 준신키는 어려워도 주의해두어서 조흡니다.

×

독사의 종류는 위협지안한한까지 보는대로잡아 죽이는 것이 조흡니다. 그런뱀이야말로 아족도 인류의생활장애요 대적입니다. 그런데 독사는 대나제는 별로 안물고 이른아침이나 밤에 만히 뭅니다. 또 제일 독이 심하기는 양력 팔구월입니다. 만일 잘못하다가물리엇거든 물린부분의 그우우를 무엇으로 잔뜩 동여노코 입으로 작구 빨어낼나당 빠는것은 자긔도 조코 남도 조흐나 닭지 입안에 상처가 잇는 분은위험합니다. 그러고는 거긔다가 독해요진이나 옥도정긔나 석탄산수가튼것을 발러서 소독해 둡니다. 또한 좋은 위로 들어 온 뱀의 독을 제어하는 힘이 잇슬으로 술을 먹는 것도 해롭지 안습니다. 하여튼 뱀의 독은 피로 들어갈까버젓이지 다른 것은 업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빠는 것이요 또 그러니까 입에 상처가 잇는 분은 빠는것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힘을기르자

세상일은 험하고도 고되다 우주가 돌려가는것도 힘이요 인류의 력사도 힘의기록입니다 모든것이 힘으로되는 이세상은것 이것을 능히이기고 웃지길수 잇는자는 힘잇는자가 아니면 어더볼수업는 큰보물을 가진자입니다

힘을기르자!

이것은 벌서건강을 의미합니다 건강하자하는말이 곳힘을 기르자하는 말입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몸을 사랑하고 애기고해야합니다 그러자면 늘 운동을 하서야지요 우리의몸은 운동을하라고 그구조가되어잇지안습니까

(사진은 운동열이오르고오른자베르데성「발레이·볼」에 한열시중해잇습니다。)

라디오

二十七日 (水曜)

◇午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記念講演『日本海大戰』 第二高普 鄭義澤
◇同八時 講演『며롱과 自殺의心理』 李晶燮
◇同八時三〇分 獨唱
一、라ㅣ르고……헨델作曲
二、그대여오라발도하와이民謠
三、悲歌……마스네作曲
四、내아기잘자라…브람스作曲
五、메리……
六、歌劇「카발레리아루스티카나」中에서……마스카니作曲
『엄마도아시는바와가티』 朴景鎬
◇同九時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 (가)平라령 (나)자진모리 二、倂唱 (가)瀟湘八景 (나)東風歌 (다)흑기러기 (라)새타령 鼓手 韓成俊 崔鳳翼
◇同九時三〇分 映畵劇 "우리들은젊은이" ●配役● 남편 李承雨 안해 金英淑 친구 成東鎬 映畵劇協會 解說 李惠興

第一放送

◇午後六時(東)라듸오파라에티ー
◇同六時二五分(東) 英語講座 鹽谷榮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海軍大將 安保淸種
◇同八時(東) 吹奏樂 海軍軍樂隊
◇同八時二〇分(大) 浪花節 天中軒雲月
◇同八時五五分(東) 라듸오·드라마 梅島昇外

二十八日 (木曜)

◇午後零時五分 報念外 一、報念 二、六字백이 三、개고리打令 四、興打令 洪桑月 崔素玉
◇同三時十五分 趣味講演『며롱三題』(三) "구름" 李秉岐
◇同六時卅分 노래공부(二) 一、산넘어저쪽 鄭芝鎔謠 玄雲作曲 二、종종새새 金泰午謠 玄雲作曲
◇同六時五十五分 兒童新聞 外實演兒童數名
◇同七時 講演『釋迦의生涯』 ―釋尊降誕記念의밤― 同德女子技藝學校 金○守
◇同八時 講演『佛敎의世界觀』 佛專講師 朴允進
◇同八時三〇分 千手와和淸 一、千手 二、八相錄和淸 金蓮花 全世峰 李環協 李仁相 林元植
◇同九時 雅律『靈山會像』 玄琴 李彥植 洋琴 獨承煥 奚琴 池龍九 短簫 洪斗憲 細笛 趙載弼 杖鼓 李章夏
◇同九時三〇分 佛敎劇『孝聖目連』 第二幕 ―釋尊降誕記念會場으로부터中繼― 【配役】 靑提夫人…柳今先 羅卜…金福姬 舍利佛…趙義慶 世尊…任仁福 阿難…金甲寅 金文…朴梅子 舍利…安再淳 鄕老A…李基 鄕老B…鄭順玉 獄主…魏京順 獄卒A…閔末妹 B…池玄昌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基礎佛語講座 丸川順太郎
◇午後零時五分 漫談 西村樂天
◇同二時 講演 賀田直治
◇同六時 掛合童話
◇同六時二五分 講演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同八時(大) 義太夫 竹本小仙外
◇同八時五〇分(大) 浮世節 橘家橘之助
◇同九時五分(東) 長唄 富士田新藏外

二十九日 (金曜)

◇午後零時五分 古談(吳人除禍) 李敦求
◇同三時一五分 常識講演『色盲이야기』 申聖雨
◇同六時三〇分 라듸오世界一週 修學旅行『伊太利』(一) 徽文高普 金道泰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스포츠講演『籠球이야기』 丁相允
◇同八時 紀念講演『農村振興과 金融組合』 中樞院參議 韓圭復
◇同八時三〇分 愁心歌外 一、平愁心歌 二、역금愁心歌 三、孔明歌 四、寒遠歌 五、山念佛 六、긴난봉가 七、자진난봉가 白牧丹 鄭綿紅
◇同八時五〇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林小香 鼓手 丁元燮
◇同九時二〇分 名曲鑑賞(레코ー드) 첼로와 管絃樂 協奏曲B短調 作品一〇四……드보르작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 第二樂章 아다지오·마·논·트롭포 第三樂章 알레그로·모데라ー토 (解說)朝鮮音樂家協會 金仁洙 첼로 에마누엘·포이어만 伯林國立歌劇場 管絃樂團 指揮 미하엘·타우베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東) 모던小唄
◇同二時(東) 婦人의時間 家庭과法律
◇同二時四五分(東) 오림픽派遣選手後選 並水上選手權大會實況
◇同六時(東) 合唱 JOAK唱歌隊
◇同六時二五分(東) 基礎英語講座 鹽谷榮
◇同七時三〇分 講演 矢鍋永三郎
◇同八時(東) 長唄
◇同八時三〇分(東) 논에서우는 개고리소리中繼
◇同八時四〇分(東) 寫生漫談 德川夢聲外

★曆★

五月廿八日(木) 陰丙辰四月小 (初八日) 庚戌·金·角·執
●祭祀嫁娶移徙裁衣動土上樑巳時 安葬에宜함
●小滿二十一日(陰初一日)
●芒種六日(陰十七日)

입에서 악취나는 분 ― 늘 쓰서야 할 양치질약

◇뭇는말

저는 금년십구세되는 미혼남자이온데 매일 조석으로 니를 닥습니다만 항상 입속에서대단히 더러운내음새가난다고 동생들이 야단합니다만 저는도모지 몰으겟습니다 그래서달은사람들과맛나 서로 이야기할때에도대단히미안한생각이드러 엇절줄을 몰으는 답답한중에 세월을 보내는불상한 청년이오며 내음새가나지안케하는가정치료법은업습니까 잇거든 기어히 좀가르켜 주십시요 (平壤 답답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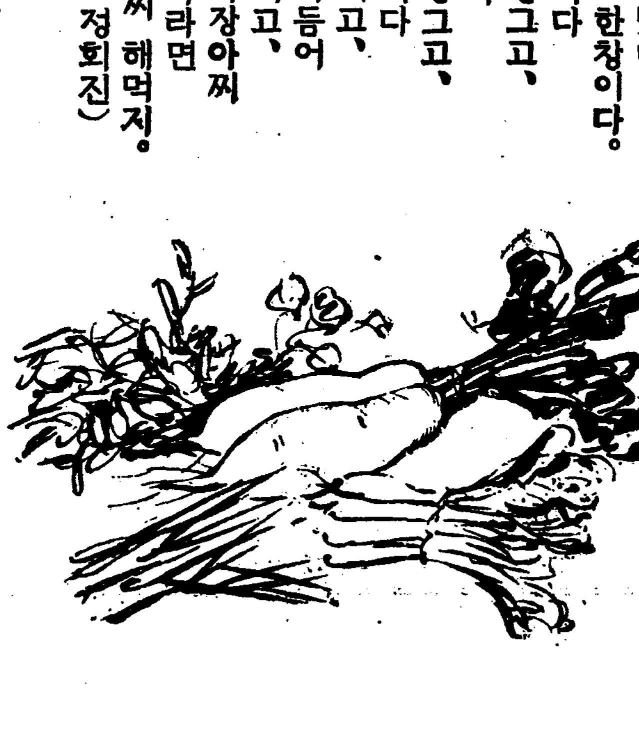
◇대 답

입에서 냄새가난다는것은 사람마다 누구나 잇는것이지만 그중에도 특별히 악취가나는분이 잇습니다 원인으로말하면구내염(口內炎)혹은 충치가잇다든가혹은치조루두증(齒槽膿漏症)으로가장 흔하고 그외에 전신질환(全身疾患)으로소화기계통에 질환이 잇슬적에도 역시악취가 발생하는것이니 어느점으로 보든지내과의나 치과의에게 속히진찰을 바더원인을 알아옹 치료를밧는것이조흡니다 양추질할약으로는 여러가지가 잇스나 대개는일시적이요 그중에특별히 상비할만한 약으로는 다음처방에 의해서 사용할때를 한컵에 두서너방울씩 타서양추하야보시요

싸 롤ㅡ	二、五
알 콜ㅡ(五〇%)	九六、五
멘푸로ー루(薄荷腦)	〇、五
薄荷油	〇、五
丁香油	〇、一
茴香油	〇、一

(세부란스病院齒科) 金喆庸

우리집 채마밧테
푸성귀가 한창이다。
배추는 뜨더다
김치를 당그고、
무는 뽑아다
깍둑이 당그고、
아욱은 뜨더다
국울 끄리고、
싱금초는 다듬어
무처서 먹고、
파뽑아다 파장아찌
마늘이 자라면
마늘장아찌 해먹지。
(금산사람 정회진)



童話 소경비둘기 (三)

金曾洙

순이는 그까짓 이렇케 고생하며 살어가는것이 귀치안흘테 배곱하 배를움켜쥐지말고 하로래도속히죽어 문저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맛나고 십은생각도 잇섯스나 제가그만 죽기만하면 소경비둘기를 누가 보아줄가? 아아! 소경비둘기가 불상해서어이혀! 이런생각이 어린 순이의 머리에 떠올으면서순이는 죽고십지안햇습니다

순이는 제가자리에서 일어날수업도록 앏어 누어서도 아참저녁으로 변소로 갓다고 아즈머니의 눈물흘어가며 소경비둘기의게 모이를 주기를 닛지 안햇습니다

소경 비둘기는 장속에서 인제는 아모리정하여시 순이의 가저다주는 모이를 바라먹으며 평안히 살어가기는 햇스나 전에업시 순이의 기름소리에 긔운이 업는데 대하야 몹시 불안를 늣겻습니다 전가트면 의레히 모이를 가지고와서는

「비둘기야! 아모 근심말고 잘놀아라 언제든지 언제든지 내 모이를 가저다주마」

하며 장속에 들여엿코 물까지 떠다주든 순이가 요사이에는 말도업시 모이만 들여트리고는 힘업시 돌아가고 돌아가고 합니다

메칠동안 그러드니 하로는 순이가 거이 기다싶히 와서 장속에 모이를 가득들여너코 물도 전에업시 만히 떠서노튼니 아조 실오리만한 가는소리로

「비둘기야! 잘잇거라 여이도 만히 가저오고 물도만히 들여노앗다 나는 인제며 살지못하고 죽을것갓다 내가 죽으면 누가 너를 어떠케살펴 주겟느냐? 아! 불상도 하다 너를 이장속에서 바끄다 내여 놋고 죽엇으면 조켓다만은 앞못보는네가 어떠케 딴곳에가 살수잇겟니 바그로 나가면 곳내미저 죽을날이로구나 그러나 내곳을위에 누가 너를불상히 생각할 사람이에도 잇슬것갓지 너는 그동안 엇재든 기운을 내여 잘살어라 나는인제간다」

하며 참아 떠나기 실흔듯이 비둘기를 만저주면서 하염업시 눈물을 흘니다가 돌아갓습니다

그날밤이엇습니다 순이는 긔어히 죽고야말엇습니다 연약한 몸에 밥낫 메마럿고 변변히 먹지도못하야 몸이 극도로 쇠약하야저서 그대로 정신을차리지 못하고 죽어버렷습니다

아즈머니는 순이가 죽엇다고 동내로 돌아다니며 알넷습니다 그리하야 동리사람들은 모여들어 작은관을만들엇습니다

그리고 그관속에 순이의 시체를너허 뒤동산에 묻으로 들고갓습니다

「불상한 아해다 길이길이 편히 무더주자」

동리사람들은 불상한 순이가 땅속에서나마 치워말라고 기피땅을파고 순이의 관을 들여노앗습니다 그리고 모도들 삽을들고 모래를 떠서 관우를덥기 시작햇습니다

그때입니다 어데서 왓는지비둘기 한마리가 허둥지둥 날어오드니 모래를 막우만 퍼서넛는 순이의 묘속으로 쑥들어갓습니다 동리사람들은 넘우도이상한일에 삽을쥔채로 떠모래를 떠넛지못하고 묘안을 들여다보앗습니다 그랫드니 비둘기는관우에안자 주둥이로 관을작고만 똑똑조으며 슯히 울고 잇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기 그지업는일입니다 날즘생이 무삼일로 죽은사람 관우에와서 제 죽을줄도몰으고 이렇케 울겟습니가?

동리 사람들은 넘우도이상한일에 말도 못하고 그저 서로 낫만처다보앗습니다 그때 그중에 늙은이한분이 삽을땅에집고 입혼한번을 쉬며 여럿을 돌나보고 이렇케 말햇습니다

短篇小說 灰色街 【六】

李石薰 作 申哲秀 畵

처저한 아메리카니즘이나 어저니하고 울은날를 능난하게 롱락하는 발부에가까운「나미꼬」가 남몰래 눈물을흘리는 그런 섬세한일면을 가젓는가? 하면 새삼스리 그의인간성에 일종의애련을 느끼게된다. 아마 민감한 최군이 벌서부터 이런데에 크게매력을느끼고 호의도가지며 자주 차저댕기기도한모양인데 취중의고백이나 인제부터는 안댕기기로 결심하리만큼 이번이사는 그의심경(心境)에 큰변화를 이르킨모양이엇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의결심이 얼마나 계속될는지 의문이엇다.

우리세사람은「쿠ー자쿠」를나와 「노ー봇이·미ー르」로들어가서 밤한시 마옵시간까지 놀앗다「나ー나」가 창백한얼굴로 죽나어서나 왓노라하며 잔기침을 콜록하고 안저섯다。가련한 비둘기엿다。

술기운으로해서 쎈티멘탈해지는것을 어찌할수업섯다。최군동독니ㅣ나의 억개를어루만지며 눈물이글섬글섬하야 중얼거렷다。

「나ー나 얼골보기두 이게 마지막일것갓네」

「왜 어델가세요?」

「안야 술ㅅ집방랑을구만둘내」

「왜그리서요…우리들이 실연(失業)을 하잔어요? 호호…」

웃다가「나ー나」는 기침이나와서 웃지를못하고 손수건으로얼론 입을 꼭막어버렷다。최군이 가련하다는듯이 물그럼히 바라보다가

「나ー나 병은안은 자주오게ー 꼿사가지구옹」

「내가 머얼케요」

「마께오시미…나ー나는 무슨꼬츨 조아하지?」

「꼿이요?ー다조치만…수선화 가제일조와요」

「내일나제 수선화 사가주구오지」

「아이그 고마원」

「그리구 무슨음식을 조아하지?」

「글세요……「오맹」을 조아해요 호호……」

「옹 그것두 내일 사주지」

그냥내버려두면 밤새것이라도 이러구 안젓슬것가텃스므로 나와박군은 그를 이끌어가지고나왓다。최군은다시 「괄로마」로가자한다。우리는반대하엿스나 절교하느니 이게마지막이니 조르는[illegible]하야 또 이끌려갓다。

「괄로마」는벌서 문을 꼭닷고 쩽쩽하게어둡다。최군이 문울랑 탕치며 「시ー짱」「마ー짱」하고 외치니까 안에서 똥똥한거집애가 연분홍 잠옷바람으로 나와 전등불을켜고 문을열어준다。이미 두시니되어 아무것도 업다는것을 잠깐보고 가겟노라하고 억찌로 드러가서 또 최군은마지막인사?를 느러노앗다。우라는 지리향찰하다못하야 쩡엄거라는최군을 이끌어가지고나와 종로에서 인력거를태워서 하숙으로보내엇다。

「이자식 첫날부터 신용잃엇다」

사실말이지 모처럼 조흔데를 어더둘엇다가 메칠도못가서 쫏겨날까봐 겁이낫다。

이튼날아침 어젯밤 늣게자서 한참고달푸게 자는대 일즉일지 규철이가 와서 또 나를깨웟다 정엄정엄하니까

「애 하주야 이번엔 정말큰일낫다」

하며 자꾸 잡어흔든다。나는 귀찬어서 혀를 차면서도 힘서 눈을뜨고 이야기를 들엇다。

ㅡ메레약혼자는 생각든것보다 뗵쾌활한 사내엿다。조곰도 꾀지랄꿉지랄 한데가 업섯다。메레 절대로 단념할수 업다하엿다。메레내는 가 실혀저서 파혼하랫려다는데 나는 메레를 위하야 모ー든 나의성격적단점(그것이 어떤것이라고는 설명치 안헛다)을 고치기에 힘쓰겟노라하엿다。메레업시 살기는 너무나 무의미하다고도 말하엿다。

「당신이 메레에게약혼자가 잇는것을 몰으고 사랑햇다니 그이상 나는 추궁하지안켓소。만일 당신이 메레를사랑하고 잇다하더라도 지금부터는 께끗치 이저주시오ㅡ메레는 버린 처한 내안해니까」

이러는데는 규철이도 어쩔수업섯다。당신의안해라면 께끗치 잇겟노라 하겟다는것이다。그리고 규철은 힘업시 말하엿다。

「그리구 발열시급행치로 신경로 떠러구가다네 아모조록 메레가 행복되기를 나는언제까지 지든지 빌것네 정거장에서도 라오니까이게왓데그런」

규철이는 포케트에서 전보한장을 끄내서 나를주엿다。

어머니가 안해를 데리구 상경한다는것이다。

田園點描

存在學의概念

—形而上學批評試論—

④ 金基錫

그러나 存在속에는 엇더한 하나가 업슴에 엇더케하랴。觀念論과 唯物論은 가장크고 가장깁고 가장넓은것이 잇다고 외오친다。그러나 存在의 世界속에는 가장 크고 가장깁고 가장 넓은것이 업슴에 엇더케하랴。하나가 그대로 여럿이요, 적은것이 그대로 큰것이고 엿고좁은것이 그대로 깁고넓은것임에 엇더케하랴。우리들은 여기서 觀念論과 唯物論에 依하야 代表되는 近代哲學의 그리고 近代哲學을나혼 希臘哲學의 根本限界를 보는것이다。

希臘哲學은 만흔知識을 人間의思惟에 보내엿다。그러나 希臘哲學은 먼저 그자신의限界를 우리들에게 가르치지안해서는안된다。希臘哲學은 「하나」를 생각하는 哲學인것이다。넓은

意味……의 「이데아」를 생각하는 哲學인것이다。그리고 이「하나」를 어데까지던지 「여럿」의 背後에 보려고하는데서 그것은 다시하나가될려든것부터 가르든 哲學이나섯다。希臘哲學은 이하나를 생각하는데서 시작하고 이여럿을 갈래주는데서 손을떼인다。

「하나가 그대로 「여럿」이라고 보든哲學이 업슬가。瞬間이 그대로 永遠이요 直線이 그대로 圓環이라고 보든哲學이 업슬가。

우리들은 存在에대한 思惟가 事實에서 出發해야할것이고 假定에서 出發할것이 아니라는것을 말햇다。

存在에 대한思惟가 事實에서出發한다는것은 무엇을 意味하는가。우리들은 觀念論과 唯物論이 어떤假定에서 出發하야 存在에대한 人間의 思惟를 마즘내 救援할것이업는 그로된자리에 잇엇슴을 보앗다。우리들은 存在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것으로 한개의事實인 그대로 기피 反省하지안허서는 안된다。

眞實한存在로서의 個物

存在는 時間에잇서서 주어진다 存在는「場所」에 잇서서 주어진다。그리고 存在는 무단히 자기를 限定하면서 주어진다。이것밧게 우리들은 存在에 대하야 아는것이업나? 이

基本……理解에서부터 우리들의 存在에 대한 思惟가 出發해야한다。우리들은 存在를 어데까지던지 存在로 볼려야할것이요 精神이나 物質이니하는 槪念을 가저올것이 아니다。存在를 存在로부터 理解하려는 存在論이 存在를 그背後에 잇는것으로부터 說明하려는 存在論에 빠지기를 두려워하기때문이다。

存在는 時間的「場所」的인 一般者이다。이 時間的「場所」的 一般者의 自己限定에잇서서 存在의 世界가 成立된다。存在가 時間的「場所」的 一般者라는것은 무엇을 意味하는가。

우리들은 우리들의 周圍에잇는 만흔것들이 부단히 時間에잇서서 움직이고 흘러가는것임을 본다。

모도가 움직이고잇고 이 움직임은 時間속에 잇는데서 遂行된다。存在는 運動속에잇고 運動은 時間속에잇는것이아니면 아니된다 사람들은 움직이지안는것으로 「意味」라는것을 생각할지도 모른다。그러나「意味」는 存在가 보이는 어떤「일」이요 存在그자신인것이 아니다。그것은 存在의

性格……또는 關係로 잇는 한개의 存在하는것으로 나서는것이 아니다。그리고 이 움직이지안는「意味」는 움직이는 存在에 잇서서만 보여진다。움직이는 存在를 떠나서 움직이지안는「意味」라는것이 자기를 나라내일이 업기때문이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周圍에잇는 만흔것들이 부단히「場所」에잇서서 얼매여잇고 이얼매임은「場所」를 차지하는데서 構成된다。存在는 緣起속에잇고 緣起는「場所」속에잇는것이 아니면 안된다。사람들은 얼매이지안는것으로서 無란것을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無는 存在의背景으로 存在의뒤에서 부단히存在를싸는것이니 無는 存在를빼앗는것과함께 부단히 存在를나허노는것이아니면 안된다。存在는 無속에잇고 無는 存在속에 숨어든다。存在는 無와存在사이를 往還한다。存在가「場所」를벗서나기는커녕, 흔히 얼매이지안는것으로보아온 이 無란것조차자기안닌것과 서로얼매이면서 비로소 無를 無로만든다고 보지안허서는안된다。

存在는 時間的「場所」的인 一般者이다。이時間的「場所」的인一般者는 무단히 자기를

限定……하면서 주어진다。存在가 時間에잇서서 주어지는데서 하나인 有限한個物이 成立된다 存在가「場所」에잇서서 주어지는데서 여럿인 有限한 個物이成立된다。存在가 자기를 限定하면서 주어지는데서 하나이요여럿인 그리고 有限하면서無限한 個別的인一般이 成立된다。이個別的一般이란 무엇인가。

우리들은 個物이란것이잇슴을 안다。이個物이란것을떠나서 存在할것이 주어질것이 업는것이다。나는 지금 책을읽고잇다。책이나나는 모도 時間에잇서서 주어지는데서 한가지로 存在로 불려진다。책은 어데까지던지책이요 나가아니고, 나는 어데까지던지 나요 책이아니니 가튼 時間및「場所」에 잇서서 주어지면서도 책은책으로 나는나로자기를 限定하지안허서는안된다。비나리는소리는 바람부는소리는 아니다。비나리는소리는 바람부는 소리를 否定하면서 자기를 비나리는소리로 限定하고 바람부는소리는 비나리는소리를 否定하면서 자기를 바람부는 소리로 限定한다。책이나라고하랴 책이 비나리는소리요 책이바람부는소리라고하랴。그때 책은자기를 否定하는것을 가지지못한다。자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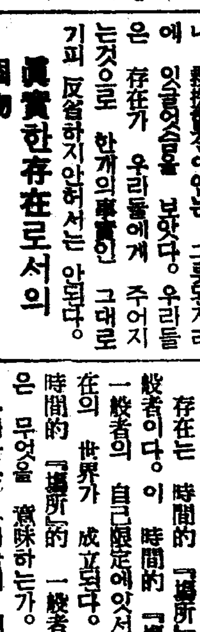
否定……하는것을 가지지못하는데서 자기를 限定할길이 업는것이다。

存在는 모도 이 자기를限定하는것에잇서서 한개의個物로주어진다。그리고 엇던個物이자기를 限定하기위하야는 그것이다른個物을 絶對하지안해서는안된다。그것이 다른個物에대하야자기를 絶對的인他者로 만드지안허서는안된다。이자기를 限定하는일에잇서서 個物이 成立되고個物이成立되는데잇서서 헤아릴길이 업는 廣大한世界가成立된다。個物은 진실로 世界의 實體이요그 基礎인것이다。이個物에대한思惟를 떠나서 存在의世界가바로 理解되지안허서는 안된다。

妙香山遊記

—西山大師와僧兵—

(三) 金武吉



大雄殿에서 東으로 발을옴기면 酬忠祠가잇스니 이곳에는 西山大師와 그高弟子인 泗溟堂大師와 處英大師의 三影像을 奉安한것이다。

이들大師은 勿論佛道에서 法人이지만 그僧侶로서의 報國과 眞味는 局外者의 對象이 될수업고 다만 그들이 壬辰亂이란 空前의國難에 當面하여 나라내인 國民的義務를 實踐하고 忠義를 다한 者이다。

即 山間에서 修道하든그들이 國難에 際에서는 毅然히 僧兵을 거느리고 壯烈한 그義俠心을 發揮할價値가잇다。

壬辰亂當時에 小西行長 加藤淸正等의 進軍은 東手無策의 全土를 席捲하여 京城의 陷落도 거이 兵火를보지안흔채 되엿고 이 乘勢에따라 小西行長은 黃海道 平安道를 侵略하고 加藤淸正은 咸鏡道를 分擊北上하니 朝野가 騷然하고 宣祖는 義州에 避難하엿스며 明國의 援兵을 자조請하엿다。이危急한形勢에서 各地의 義士가 蜂起하엿스니 郭再祐가 宜寧에서 義兵한것을 爲始하야 高敬命이 沃川에서 趙憲이 錦山에서 戰歿하고 長興의 高從厚이 本是 錦山에서 戰死하고 光州의 金千鎰은 晋州城에서 奮戰하다가 城이 陷落되매 投江自決하고 水原의 洪季男도 陣歿하여 實로 그 壯烈을 見하엿다。

西山大師(休靜)가 門徒數千을 糾合하여 各處에 義擧하매 當時 金剛山에 楡岾寺에 잇든 高弟子 泗溟堂惟政(松雲)도 呼應하고 또한 弟子 處英도 各其活動하엿스며 마치明國의 援兵도와合으로 明將李如松과 合作하여 平壤城에서 小西軍을 後退시켜 南으로 물엇다。

西山은이미 老境이엿스므로 그는惟政과 處英등을 내세워서 捕虜賊을 몰랏고 惟政(松雲)은 還俗의 이르러야 加藤淸正과 會見하엿다고 日本에갓든일까지잇엇다。

(「西山文集」「僧統」 一萬兩의 大將(將)에 統率된 僧徒(中略) 各從本道起 本營會于人(中略) 惟政自代率從軍衆 同天將 破平壤賊 云云

이글로써 그들活動의 一端을 볼수가잇다。

아직도 西山、惟政의 遺物들이 만히 寺務室에 保管되여잇는바 西山의 文集인 淸虛集을 볼때에는 그의 道僧으로서의 面影을 窺知할수가잇고 惟政의 長劍을 볼때에는 그의 武士的인 人格의 一面이 눈아페 떠오른다。

日本武士道의 實踐이 거니와 그들의 肉體는 어미간지 오랫스되 그들의 義는 永遠히 살것이다。

그外에도 普賢寺에는 高麗王師이든 懶翁大師가잇섯고 多數名僧達人이 잇는곳인만콤 그 歷史的地位도 尙上될수밧게업다

다시발을 西便으로도리켜 한참가면 이곳最初의 創建者인 安心寺가 나오다분하게보힌다。이 安心寺는 高麗光宗十九年에 探密大師가 建造한것인데 寺院으로서의 볼것은업스나 아직까지 僧侶의 大殿落이업시 頑强히 버티고잇는것이 壯하다하겟다。

그뒤로 도라가면 約五十餘個의 大小浮圖가 노혀잇고 또三十餘座의 碑石이 羅列해잇는데 모다 歷代高僧들의 자최를말하고잇다。그中에는 西山大師의 浮圖와 碑石도잇다。

멀리 上元菴쪽에서 山비둘기의우는소리가 구슬프게들려와 이들의亡靈을 吊하는感을준다。

나는大雄殿 普賢寺境內를 다보앗슴으로 草堂에 나려와 點心을 먹기로햇다。山菜의 가지가지가 하는가하면 僧房의 숙사기며 아름다운 女人의 자조귀人사화가 종해지는것이다。그러고世俗的인 느끼게된다。이리하야 子先의 實驗은 自認하엿다。

美展槪評 (七)

安碩柱

▲陳炳德氏의「卓上의靜物」은 亦是 새로운 創意가 업다 무던하다는 말은 平凡하다는 말일것이다

▲金淸柱氏는「花束」은 어찌보면 迫力이잇서보히나 또어찌보면 靜物中에꼿이 畫筆을 괴롭게한 면「떡벌럿기」에 올올드러면든꼿갓게하는것이 아닌가한다

▲閔泳柱氏의「病後의肖像」은 小品이지만 빗은조타。또빗으로도 나。그女人의 表情으로「病後」를 말하라하지말고 다른—即、對照로表現할수업슬까 그보담도 그 顏面을가지고 그려氣分을 내엿다는것이 너무드러마리해서 作者가 아즉 一家를 成햇다고 할수업슬것이다

▲故金鍾泰氏의「靜物」—이作品에서 너무도 일즉完成된것을 보엿고 이래서 氏는 一生을 終하엿든가 생각된다 그러나 洋畫部에잇서서 임이大家의門으로드려가는氏一人이지모르다

▲鄭玄雄氏의「春衣」는 昨年作品에比하야 낫튼품이 보힌다 업밀히 生氣가잇는 산線이잇섯고 따라서 氏는 꾸준히自己의 길을開拓해나아가는분이다後日을注目하자 이外에도 西洋畫에잇서서 話題를 삼을것이 만햇스나 印象이 稀薄하야 그것만가지고 이야기하는것이 作者諸氏에게 罪가 되게하야 西洋畫에 잇서서는 이만끄친다。

◇

美展에서는 彫塑을 工藝部에 加入식힌것은 彫塑部의 點數關係인지 모르나 將來의 發展을 爲하야서라도 獨立식힘이 조흘것갓다

彫塑에잇서서는 아즉 貧弱한것은 事實이다 點數로나 作品의 優劣로나 보아서 그럿다

金復鎭氏의 作品을오래만에對하니 반갑다 그러나 이번이作品을가지고 氏의過年作品과 압흘말해서는안될것이나 그 健實하엿든 作品을 보혀줄날이 멀지안흠을 나는밋는다 氏는 그外에 佳作들이잇스나 내가말할部門이 못됨으로 이만끄치고 工藝部에잇서는 朝鮮情調가 드러난것을 만히入選식힌것은 異彩라고할수 잇스나 너무도精巧한것만이 만허고 藝術家의 眼目으로 보와서 이곳의風物에서 떠난너무도 實用的인것이 잇지안는가 한다

이번美展 大體로 보아서 큰 收穫은업다 이제부터 美展當事者便에서 發展策을 講究하지안흐면 沈滯만 보힐는지모르다

畫人生活을 떠난지 오래인筆者가 諸氏의 力作들을 『편』한 개로 槪評이나마라도한것이 너무도 猥濫한지이엿스나 이것이 朝鮮의 畫壇을 爲함으로만 아려주면 깃부겟다 (끗)

「五月의記錄」 (二)

許俊

自己가 하고십흔말 自己가 할려고하는일은 다 自己로서는 남에게 알리고시푼일이다。(一)의存在들은 이意味에서 거의本能的으로 나타나기때문에 이것을 表現하는에는 여러가지 손쉬운 形式이잇슬것이다 그럼으로 이때 그들의 生活態度가 作家와親近할이어야다하는것도 問題가 되지안는것이다。그러나 이것은 또 한 에써서 진기잇게 描寫해내야 하는것이지만 海宇와 가튼사람에 잇서서는 그러한 것이업고 求心的으로 입에 뗄고 씻으려는것을 恒常 다시고 잇는사람에게는 對話라든지 편지라든지 또는 手記가튼것으로는 어울리지안흠으로 여기에는 무슨 새로운手法이 案出되여야하지안흘가。—그手法이란것은 말하자면 할말을 다하면서 自己를 나타내이지안는사람 自己를 表現하는사람 그러한자리에 海宇는 안저야할것이다。외 그러냐하면 그는 실상 너무도 感傷하기쉬운사나희이기때문에 沈默하는 사람인까닭이다。그러나 또 한가지 다른 方法은 그를 圍繞하고잇는 (一)의 群像을 印象的으로 鮮明하게 그리는것— 가장 多彩한 그림속에서는 巧妙하게 아친 한點의 빨련크도 유난하게 눈에 띄우는법이니까

얻— 가을날 할아버지는 손녀 두아희를더리고 山에갓다돌아오는길이엿다。

큰아희는 山에서 밤나무를꺽거 한아름 안고 적은아희는 들에 내려가서 들국화를 한북금 해들엇다。꺽거들은 밤가지에는 먹음직한 밤송이가 달리여잇고 꼿도 송이송이 산향기가 풍기는 향기로운 꼬치엿다。

아희는 큰아희고 적은아희고 다 제가진것이 자랑스러운 얼굴이엿다。

그러나 압서거니 뒤서거니 생겻과 내것을 견주어보며 길마루는지 큰아희는 문득 길바다에 서서 동생의 든것을노라며

「그까진 꽃을 꺽어서는」

하며 그는 도라서 할아버지를 보고 그러고는 또 동생을 며을 바며 가키엿다

「그까진것 갓다가 밥이 될까 죽이 될까」

하고 어룬되가나지 또 할아버지를 들어보고 눈으로 동의를 구햇다。동생은 갑작이 어지 서운해지며 압을 서서 언니를보고 제꼿을보고 제꼿을 보고 언니든것을 보고 그리고는 입을 삐쭉하드니

「그까진건 또 뭘 할래가」

하며 동생도언니에게대어들엇다

「뭐 먹지도못해? 죽게지 원」 하는것은 언니의말

「죽거의 죽어 꼿은 도외 보지못하나」

「그까진것 멧송이나 밧」

「그까진것 또 까를 어원해가 난 밤가를것 먹구십지도안하여 배가 요러케 불럿님」

하고 동생은 언는배를내밀고언니눈아페서 두들겨보엿다。

「빌어먹을년 제까진게 안먹으면 얼마나 안먹어!」

「외 누가안먹지말라그랫서? 빌어먹긴 먹구시픈년이 빌어먹지 외 내가 빌어먹어 안먹을려야 안먹어 안먹으면 고만이야」

말이 오락가락하다가 차흠이 되여 큰아희는 동생의꼿주인손을 처버지럿다。동생은 와아 울러지고 꼿을 사정이 땅에 흐터진 버리다。할아버지는 흐터진 꼿을주어올리며

「자 자 차곱게 하나도어루면, 자자 얼이나 어여나, 아히들이란어떼서—」 노하고 말여주저안은 채운어덤을 달래엿다。

存在와오—매와 그觀心은 乃至 愛憐에대한愛着의問題

海宇에게는 여러가지 問題가 만타。이것은 海宇의 性格가 잇서서 만타고 하면 海宇에게 잇서서는 아니되는나 하는 問題다。잇서야 한다면 그에게 問題는 問題되는것이다。問題가 잇서서는 아니되다면 그때는 問題는 매우 簡單한것이다。이것이 問題인것이다。大體무가 어떠한것을 要求하며 바멋슬가—이것이 海宇에게는 問題다。그리면서도 그는 이 自己의 消極的인 實心에 恐惶을 가지느냐하면 그런것은 아니오 말하자면 그는 이러한 無理한 無目的 無氣力의狀態에서 거저날이업는곳에 一種의 教養까지도 밧고잇는사람인까닭이다。

作品의 深度라고하는것은 어느기픈곳에 잇는것이아니오 기피들어가는데 잇는것이다。海宇의 問題라고 하는것은 하나도 봇드럿다 노올것이업다。

文藝時感

小說안쓰는辯明

● 蔡萬植

그래서 나는 아모리 생각하여도 月給쟁이로만 뺑뺑돌다가는 小說은커녕 그近處에 어른거리지도 못하겟다고 늘 중리를 하든끄테 不幸中에도 多幸으로 新聞記者란 職業을 내노케되엿슬때 한 기쁜希望을 가지게되엿섯소

「인제 文學에 좌ㅣ 精力을쓸수잇겟다」느고……。

그러나 거기에는 準備가 必要햇소. 눈에다 너허도 아푸지 아니하게 주는 原稿料만을 밋고는 마음대로 文學을 하기는커녕 그날그날 밥을먹기도 不足하오

그래서 아주 一二三年이고 五六年이고 그리 놋치는 아니하나 무슨것을 해서든지 조곰 돈을 벌자(허허 웃지마오)

그래노코나서 그놈을 먹어가면서 그때에 小說을 쓰기시작하자

이것은 어룬의 空想이엇소 돈이라는것은 돈을 모을수잇는 사람에게만 모아지지 나가튼사람에게는 모아지지 아니한다는것을 내가 깨닷기에 나는그다지 힘은 듣지아니햇소

상팔자로千兩富翁을 하고 다니다가 허허웃고는 이처럼 當食의 計劃인 이下宿에 드러업드린지가 於近 두달이 되어요

◇

그러나 지금 세상스럽게 다만 명문아니되는 文學論으로 밤만 어떠먹자고 되지도 아니한 小說을 마구대고 써내어자니 그것은 죽어도 할수가업고 그러고 도하가지 重大한 條件이잇소

靈感이니 메아리音이니 하지만 그러나 올바른 理論을 理論대로 把握하여가지고 그것으로 武裝잡는것이 小說을 쓰는데 큰 基礎가 되는것이오 따라서 重大한 素因이야 되는것이지만 그래나 理論을 理論대로 그러만노앗자 그것은 한개의 常識에 不過하오

여기서 「무엇을?」과 한가지로 「어떠케?」와 問題가 생기는것인데 이「어떠케?」와 問題를 다른지혜들은解決한듯이 보이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알지못하오 그래서 자꾸만 보고 생각하고 하지만 머리가 돌지안이지 아직도 알수가업소

——唯物辨證法的 創作方法에서 ××××的 레알리즘에서 ××的로맨티시즘에서……。

이러케 文明한 文藝理論들을 은 분명하게 消化하여 한것만 作家그中에도 머리가 둔한 筆者인 나는 글字를 아는데 에그것이 무슨소리인지를 알것으나 듯다고 배인다든지 하를며 그대로 實地에서 그法으로 創作을 할수는업고

「唯物辨證法」「슈—베이크」 小說을보면 「슈—베이크」가 시원을 밧는데

「나는 官許白痴입니다」

고하고 웃지도아니하는 場面이잇고 좀 도거리잡지안시 나며 바보라고 불으면

「응 나는 低能兒야」

하고 대답하지오

◇

K君

나는 아직도 文學을 바리지안코 엄이 傷하다못해 예엇집어지냥가보다 고 버려지는데도 엇지는 아니하지만 마치 偶然사람을 어둠도업시 바리지못하는것처럼 바리지는 못하오

이러케 잘고 느러지니가면서 훗은 한平生 어지경일지는 그것도 또 모를것이고 마는 인제 쓰기는 쓰지오

써보아서 그것이 되지아니하거든이면 그때에는 정말 봇을 꺽거바리고 文學과 永訣하겟소

그러한대자 決코 아모일도업소 좋이 그야말로 마음더지는데 小說을 쓰지아니한다든가 또는 文學과 永訣을 한다드래도 文壇은 잃을것도업고 더구나 文學을爲해서는 아무러지도 아니하오

文壇에는 시방 큰 재주와만흔 工夫를차흔 新人들이 나날히 나오고잇소

漢詩募集

題、綠陰

押=黨

◇限五月末日

(薄謝進呈)

海外短信

「라고ㅡ르」翁의 乞食行脚廢業

【라ㅡ라ㅡ】印度의 國民詩人 「라빈드라 나ㅡ트、라고ㅡ르」翁은 今年 七十五歲로서 겨우乞食을 廢業하게되엿다고 깃버한다「라고ㅡ르」翁은 自己가 經營學校를 經營하면서 그維持때문에 每年寄付金募集의 旅行을 하는것이 常例가되여잇는데 今年부터는 그것을 하지아니하여도되리라고하니 翁이깃버할것도 無理는업다、그런데 그由來를 드르면翁이「산티 니케탄」(카르캇타의郊外)에 經營하는學校는 現在負債가 約六萬루비ㅡ(約十萬圓)잇는데 今年도敎授의 一族으로서 學生들로서 素人劇團을 組織해서 各地로 興行하고 도라다니는바 어느 無名氏로부터「翁이 老齡으로서 乞食을하는것을 참아볼수가업다」고해서六萬루비ㅡ의 小切手를 寄附해온것이다 그리고 그小切手에는 同封되여잇는데「翁이야말로 그偉大한作品과 文章으로서 印度의 魂을 全世界에 紹介하야 我等의 不名의 靈魂을 震撼한偉人이다 云云」이라고 씨여잇다

▲求女職 讀者여러분중에 或

讀者社交室

▲讀者諸賢中朝鮮의情調를사랑하시되 農村女子敎育의 참뜻을 가지시고 適當한 業地를차저헤매시는 女士한분求하오니 有意하신이는 生에게書信으로直接問해주시기바랍니다

平南成川郡靈泉面大Y波 羅館讀

▲求貸家 城北町이나 東小門附近으로朝鮮式이나日本式을不問하고五六間쯤되는清潔한南向家一棟을月貰로求하오니有意하신분은 本社交室을 通하야下敎하시오면 一次訪問하겟사오며 謝意도表하겟슴니다

市內敦岩町四〇二ノ三五 讀者

▲讀者諸氏 又는諸氏知友中에 左記書籍을가지신분은 該書籍을讓受又는 借讀코자하오니 만히紹介하야주시옵

一、河上肇氏編 社會問題研究 第二號 一、社會思想社編 社會思想 大正十二年三、四、五月號 一、嘉治隆一 後藤信夫著 マルクス・エンゲルス(大正十四年版)

▲元山鶴石洞에 居住하던 金晋勳氏의 現住所를아시는분은곳 通知해주시면 大端感謝하겟습니다 京城鐘路四丁目二四 閔孝植

▲當年十九歲女子이온대 店員이나看護婦을 希望하오니 採用하실려면 通知하야주시기바랍니다 學歷은 普校와 產婆講習을 단겻습니다

市內西大門町二丁目八〇番地 一女子

村에오서서 農村사람의 食口모양으로 苦樂을가리하시며家庭婦人의指導者겸 女子들의先生으로 言行과 技藝를가라치시고 이로말미암아 農村의家庭文化를 向上시켜보시겟다는 實心의 女士한분게시오면 書信으로 生에게 詳細한것을 무러주시십시오

平南成川郡靈泉面大Y波里 羅館讀

▲本人이多年間研究中이던 煙草自動販賣機를近日에와서 完成이겨우되엿습니다 本機의要點은 電氣를使用치아니함으로 一臺原料二圓假量으로製作이됩니다 本人은 職業關係上單獨經營키不能하와 同業하실분又는權利讓受를하실분을求합니다 有意하신분은 左記로照會하시고 實物을보시고 저하시는분은 來臨相談하심을바랍니다

京義線南川驛下漏川市 姜炳玉

▲小生이商業講義錄(中學程度)을求하려하옵는데 讓渡하실先生이게시거든 下記住所로 詳細事項을通知하야주시기를 바랍니다

京城府外東幕上里四三三 徐福成

▲市內安國洞을 中心으로 조용하고 家族가려 對해주실 下宿을 하나求합니다 나히는 二十五才이며 文筆를 職業으로하고잇습니다。獨房이 必要합니다 하여튼 親切하면 모든것을 가리지 안켓습니다 文學의동무가잇서도 조켓습니다。下宿을求하는 K生으로 알니다고 讀者社交室을 通하여 아르켜주시오 下宿을求하는 貧弱K生

▲當方에 早稻田中學講義錄全揃(全二十五卷)잇습니다 相當한 書籍과交換又는 廉價로提供하려합니다 厚紙美裝表紙한것으로 最近것입니다 京城府鍾路四六ノ四九六

新刊紹介

▲[illegible] 第五十號 (月刊) 發行所 京城府和泉町六 朝鮮高等[illegible]學會 振替京城八八九五番 定價一部五錢

▲基督敎報 第五十六號 (週刊)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基督敎報社 振替京城二一五九〇番 定價一部五錢

▲西海公論 六月號(主要內容) 人間探求의文學…白鐵 大京城府政經濟論…徐椿 現代獨逸哲學과 나치스의世界觀…田元培 朝鮮가 부릐의體驗…李箕永 其他 發行所 京城府竹添町一丁目一〇 西海公論社 振替京城九八〇番 定價十錢 送料二錢

기침에!

백일해・홍역
밧튼기침・천식
인후염・만성담
기침・감기폐염
으로인한기침에

어린애의 기침은 감기・폐염・기관지염 홍역・백일해의 위험신호입니다………하로밧비 「지밋신」으로 곳처주십시요

백일해・홍역

「지밋신」은 담・기침약으로 구미국에서 유명한「지미草劑」의 대표적제약으로 기침에잘듣을뿐만아니라 맛이조흠으로 약을 실허하는 어린애라도잘먹게됨으로써더욱 유효하며 더구나 조곰도 극약성분과 마취성분이 섞겨잇지안음으로써 아모리 몸이 약한 어린애에게도 아무부작용의염여업시 절대안심하시고 먹일수잇는약입니다。

기침병중에도 가장고통이 심한 백일해・홍역의특효약으로 칭찬을밧고잇사오니 초기에사용하시면 예방이되오며 병의진행중에 사용하시면 경과를빨으게하고 고통이심한 발작과 담・기침을곳개이게하며 구토와쇠약을방지하고밤잠을잘자게만들어줍니다。

밧튼기침・천식

조선에만흔 밧튼기침・담기침・천식・호흡기병으로인한기침에 무슨약보다도 조선사람의체질에꼭마저서 잘듯는다고 칭찬과감사로환영을밧고잇사오니 어느가정에도 꼭한병식갓추워두시사 기침을하거든 한숙갈…잠재일때에한숙갈식…사용하시면 잠을잘자게되고 자는동안에 병세의 악화를방지하고 전쾌를빨으게만듭니다。

チミツシン

지 밋 신

一五〇瓦…一圓
三〇〇瓦…一圓八十錢
全道藥房에서販賣함

發賣元 東京市日本橋區本町二ノ七
株式會社 田邊元三郎商店

TY-K-34

連載野談

布袋記 (二十四)

申鼎言 作
金熊超 畵

머슴살든일검 (十二)

울품은 잣는지 안잣는지。그렁 저렁 밤을 지냇다。

그리고 소곰장수에 무엇이 들엇는지 안들엇는지。그도 저도 모르는 소곰짐을 짊머지고 로파에게 작별인사를 한뒤 문밧글 나섯다。

『소곰사우 소곰사웅!』

하고 로파가 나스면서 외우는 피로운 목소리는 사수촌의 일은아침 공중에 울리엿다。

울품이 소곰사라고 웨치는소리는

『어, 악한세상, 어, 긔구한 내팔자!』

하는 그 가슴에 맷친 원한을 소곰을 사라는 소리로 변하야 웨치는듯하얏다。

울품은 여내 소곰사라는 소리를 웨치며 사수촌 동구바모로

좇어갔을 막 돌아설때

『소곰장수야! 소곰장수야!』

하고 크게 불으는 소리가 들렷다。

울품이 고개를 돌려보니 그는 전번주인 로파이엿다。

로파는 두 주먹을 불끈쥐고 숨을 허덕거리며 쪼차와서 소곰짐을 꽉잡고 숨찬소리로서

『이놈。이도적놈!。』

『웬 말슴이요?。』

『웬 말슴이라니。이 도적놈 소곰팔러 다님네하고。남의집을 건 집어다 팔어먹는 이도적놈!。』

울품은 도적놈이라는 소리에 사지가 떨리며 곳 주먹이 로파의 빰에 올라갈듯하얏다。

그러나 또한 자긔의 마음을 꾸짓고 우스면서

『여보 주인님!。내가 무엇을 도적해 왓단말슴이요。』

『내 신한귀례를 도적해왓지。무엇을 도적해와。』

『신발이요?。』

『그래서。』

『내가 소곰장사는 하우마는, 그런짓은 아니하우。달러 차저보시우。』

『이 뻔뻔한 도적놈가트니 제가도적한것을 남에게로?。』

『죽어도 그런일은 업소。』

『이 도적놈아 잔소리 말어。내 소곰짐을 풀어보자。』

하고 로파는 떨려들어 소곰짐을 뺏기어 땅에 내려노왓다。

그리고 두손으로 소곰주먹을 쥐오로 헤치니 과연 신한귀레가 나왓다。

로파는 제손으로 너흔 신이니 제손으로 차저낸것이 그대지 신긔할것이 업는일이다。

그러나 울품은 천치만 똑아니 엇재 놀래지아니할수 업섯다。

로파는 소곰집에서 꺼낸 신짝을 들고 울품에게 상아때질을하면서

『이 도적놈 이것은 무엇이냐 신이아니고 귀신이냐?。이죽일 도적놈!。』

하면서 소리 소리를 질으고덤벼든다。

로파가 큰 소리를 지르는통에 동리사람들도 하나, 둘식몰려들엇다。

『구경들 하여라!。남의 신발을 훔처 가는놈은 도적놈 중에도 고약한 도적놈。좀 도적놈중에도 색기좀 도적놈!。』

하며 전후좌우에서 욕매가 들어온다。

울품은 로파가 소곰 집에서 신을 끄내든 처음에는 귀가막히엇소나 나중에는 그것이 모두 로파의 흉계인줄을 깨달엇다。

그러나 자긔의 청백한것을변명할수도 업고 로파의 흉계라고 시비를 가리기도 어려운경우이엿다。

다만 못할, 못할것을 맛는것밧게는 다른 도리가 업섯다。

또는 어서 소곰집만 뺏기면은 만사가 다 풀리리라 생각하얏다。

그런데 로파는 동리 사람들이 모와들자 긔가 더욱 놉파지며

『이런 미례운 도적놈은 빨께로 세이안될려야。관가에다 잡어박지어서 주리때를 안겨야해。이 도적놈, 가장。』

하며 울품의 옷소매를 잡고서 앞으로 끌엇다。

울품은 소매를 뿌리치며 로파를 노려보앗다。

어때에 여러 사람들은 울품을 꿀고 밀며 관가로 풀우가리 떼리갓다。

그런데 울품이 잡혀가는 관가는 앞게서 울품을 잡으라는 분부를 바로지 오래엿다。

그뿐아니라 울품을 잡으려고 서울서 내려와잇는 무서운 군사가 며칠고잇는중이엿다。

울품은 장약이 부뚱으로 관가까지 잡혀갓다。

映畫와音樂 (4)

金管

새로운藝術인 토ー키로 말하면, 토ー키ー에使用되는 音樂이 『音樂演奏이고劇的要素』라는두가지의것임으로──音의要素를基調로하는것과 映畫的要素와音構成하여야되는다。

이토ー키가 오페라(歌劇)라든지 劇音樂과區別되는것은、토ー키가 어듸까지든지 劇的要素를 第一義的으로 尊重하고잇기때문이다。

그런데 토ー키ー가운데처음으로 音樂을쓴方法으로말하면 멜로듸ー와 和聲을音樂的關係미러서가는것이다

토ー키ー의畵面을 멜로듸ー라고할수잇다면 音은和聲이라고生覺할수잇다 則畵面과 音의징을로나이제金을 하나의和聲이라고假說을세울때 前回에말한 對位法的問題가이러나게된다。

對位法(英名Counter-Point獨名 KontraPunkt)은 勿論音樂上用語지만 畵面과音樂의平行關係를 對位法이라고 하는말로代用한다。그러타고해서 音樂의對位法形式을 토ー키ー에適用하자는것은 絶對로아니다。토ー키ー는 音樂의對位法과別個의것으로考究될것은 說明할것도 아니다。(次次詳說하겟음)

토ー키ー初期에는 이對位法的『對照』에는 全然 未踏의境地로理論的으로 何等 體系를차즐만한것이엇슬뿐더라實際製作에잇서서도 보잘것은업섯다。스탄버그의『모록코』에서는 對位法的手法으로어느程度까지 成功한作品으로 認定되여잇다 普通말하기를對位法的인 音의使用은 畵面과直接關係가업는 音을使用하는때라고한다

이말은 音樂上의 對作法이라하는것이、한개의 音으로旋律에엇더한法則에딸어서 『다른한개』의 旋律이對照되여서(對立、或은對合)進行되는것을 말한다、勿論作曲法의基礎的인 法則으로써 云以來로 使用되는것은 周知의事實이다

그럼으로 토ー키ー에서 畵面(第一의旋律)의對立되는의 音構成──組合이라는意味──(第二의旋律)이라는것이 原則的인法則으로서 記憶되지는 오래다音樂으로말하면 그 表現하는것이다른엇더한 藝術보다도 抽象的이지마는 그音樂을 構成하는音의스트럭튜어(組合)와 樂器編成法、樂曲形式等은 數學的이며機的이다、그럼으로 새로운藝術形態인토ー키ー에서 이音樂上의手法을利用하는것은 여러가지의便宜가잇다。오날無聲하는 外國作品토ー키ー는 音樂을完全한獨立音樂서하지아니하고 充分히音樂을調照식히고잇다 말하자면劇과 音樂의結合이『合理化』되여잇合을 證한다。

웨래、視覺的要素(畵面)와 音樂的要素의 狹잡한 同時注에서떠나서 完全히 서로 따로따로獨立되여야하고 따라서는 그두가지 [illegible] 하는데서 다시말하자면 對[illegible]法則인데서 새기게되는 映畫의詩를 觀賞하는것이여야만 되겟지만 이것은未來의問題로돌리다 오늘보는 優秀한 아니 評判이조흔 토ー키ー라는것은 짝그・부루만이 말하듯이 열이면 열개 音樂이低位에 서잇는 作品들이다 우에서말한『合理化』라는것은 音樂이그獨立的形式을 讓步하고 또劇的進行에 그렘포를 讓步하는데서맨들려지는것을 意味한다 過程의時期인 오늘의 토ー키ー가가지고 나가는 가벼지 아니한苦悶의 產物이다

×

나는 여기서부터 좀더 具體的인 論究──토ー키ー에잇서서 엇더케音樂은 處理되고 잇는가하는 問題를들어(例擧)보기로한다。

全體音을 가지 안흔 映畫가、『音』의 要素와 機能이 畵面(劇的要素)에 參加하게되니、當然이 토ー키ー藝術의素材로서 現實的인 自然의 『音』──사람의 音聲、騷音、物體에서나는 모든 音──과、音樂이 積極的으로參加하게된것은 初創時代에 잇서서의 토ー키ー의當然이 밟은길이 잇슴은 우에서 이야기한바와갓다。

新妻同伴하야 다그라스歸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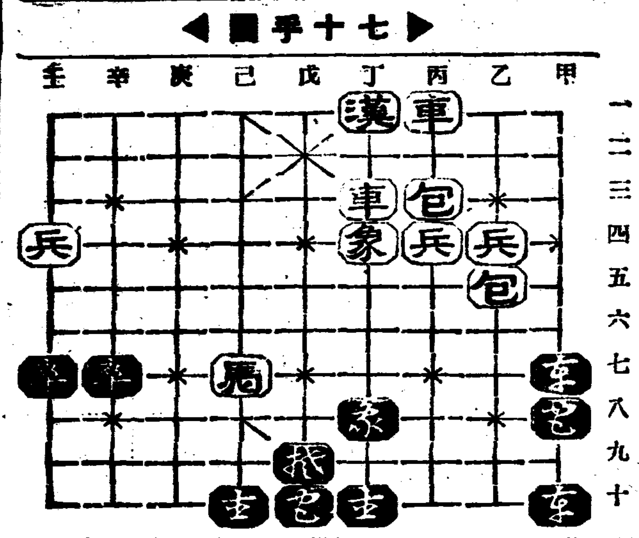
메리、픽포드와 離婚을하야 世界各地를 놀러다니든 다그라스、페어뺑스는 去三月七日 巴里에서 愛人 씰비아、앳슈레이孃과 盛大한 結婚式을 擧行하고 四月三十日新夫人同伴으로 歸米하얏다。寫眞은 다그라스新夫妻

將棋名手對局譜 (八)

本社主催

漢 李在鳳 對 先手 金子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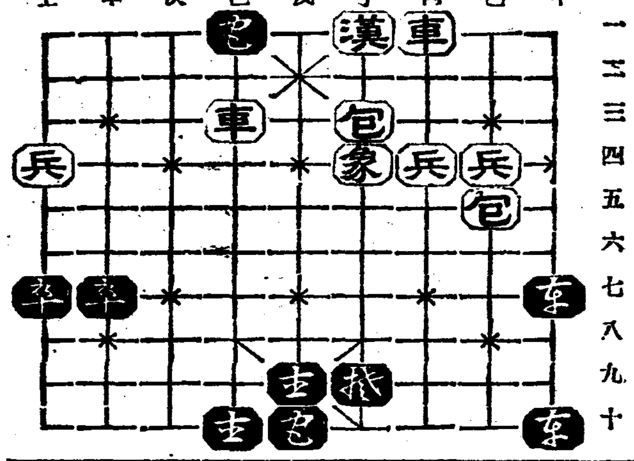
◀七十手圖▶



◀八十手圖▶

申六●─己八
己七馬─丁八打象
戊九●─丁八打馬
丁三車─戊三
丁十●─戊九
戊三車─己三
己八●─己十
丙三包─辛三
丁八●─丁九
辛三包─丁三呼將

六、七回分戊一漢은丁의入에 先手의權利를 訂正할이어야엇삽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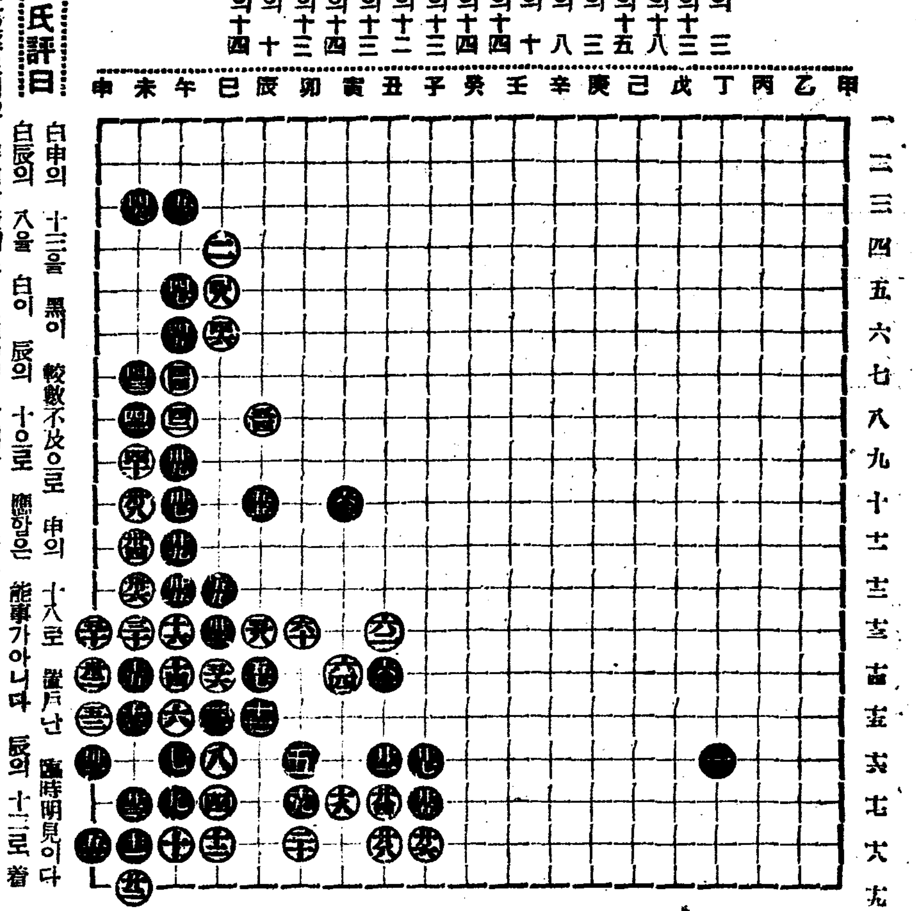


圍碁對局譜 ─4─

本社主催

白 丁奎春
黑先 任佑植

●四九 未의三
○五十 申의十三
●五一 申의十八
○五二 申의十五
●五三 午의三
○五四 辰의八
●五五 辰의十
○五六 巳의十四
●五七 辰의十四
○五八 辰의十三
●五九 巳의十二
○六十 卯의十三
●六一 丑의十四
○六二 丑의十三
●六三 寅의十
○六四 寅의十四



蔡極文氏評日

白申의 十三을 黑이 較數不及으로 白辰의 八을 白이 辰의 十으로 應함은 能事가아니다 辰의 十二로着하면 以杜後弊도되고 展向方策에도 自由力이 便利함을 證言하노라

ウテナ 愛用者 御招待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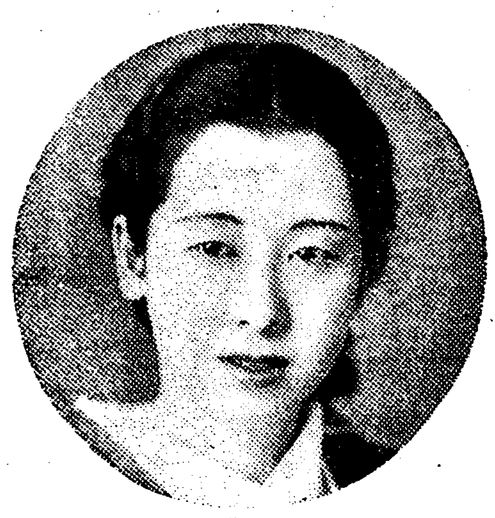
우 데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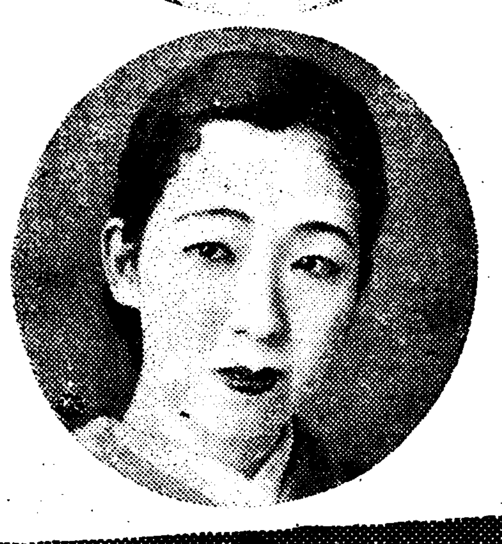
吳葉順子

映画と舞踊

푸로그람

一、토ー키ー短篇映畫
二、新日本舞踊　　九貴麗子三姉妹
三、漫談과鳥獸聲帶模寫　　木下華聲
四、新日本舞踊　　九貴舞踊團
五、映　畵
A、漫　畵
B、朝日世界뉴ー쓰
C、라듸오放送局의하로『電波로는』三卷


九貴信子


九貴麗子

木下華聲

六月十二日　仁川 瓢 館
六月十四、五兩日　京城 府民館
六月十六日　開城 開城座
(何日이나 午後六時半開演)

御招待方法

近處販賣店에서 ウテナ化粧品一個買上하실때마다 待券一枚식進呈함。當日來場하실때에는반드시 招待券에 ウテナ化粧品의空函을 함께持參하서 라。滿員될時에는 未安하오나 入場못하게되오니 速히모이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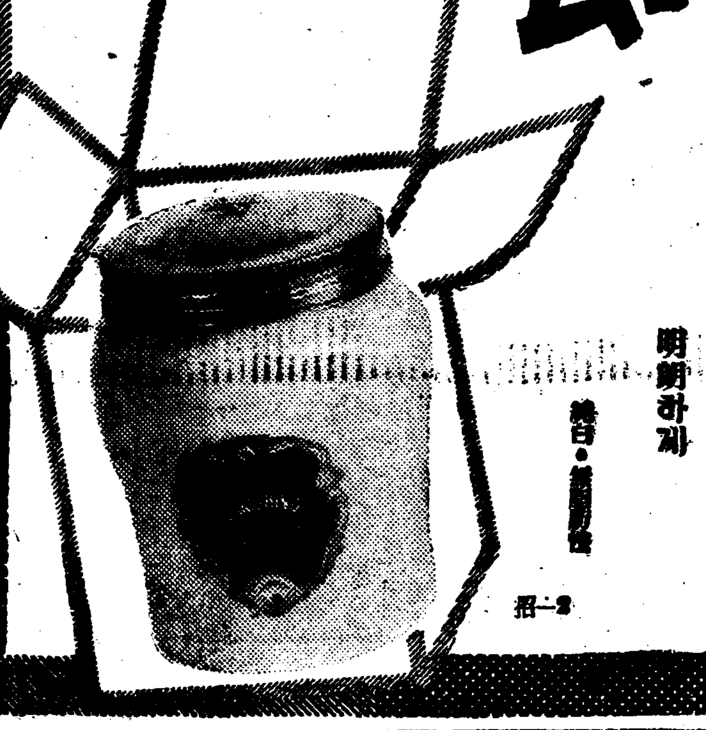
主 ウテナ化粧料本舖
催 ウテナ化粧料販賣店聯合

九貴靜子

ウテナ(雪印)バニシングクリーム

넘치는 魅力!
躍動하는 美容

산뜻하고도爽快한 그感觸
餘分의脂肪을 解消하야
눈과가티빗나는美肌를養하는
朝夕으로즐거운ウテナバニシング
벗거롬、여드름을防止
날로 살결을 젊게하는
ウテナの雪印으로
初夏를 맑고 젊고
明朗하게



咸南道內의勞働者 四萬四千의多數

其中에는幼年工도八百餘名

四月末現在의統計

【咸興】 함남도보안과에서 조사집계한바에의하면 사월말현재함남도내에 직공백명이상을 가지고잇는 대공장은 전부일백칠십오개소로서 직공총수는 이만오천칠백칠십팔명의 다수다 그중에는 만십륙세이하의 유년공도팔백오십팔명이나되며 녀직공도 일천팔백칠십사명의 다수에달하는데 임금은 평균오십전내외간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시공사장(工事場)은전부륙십확개소로서 종업로동자수는 일만삼천이백이십오명으로 일일로임(勞賃)은 일만오천사백삼십사원칠십전으로서 일명당평균 팔십일전이나된다 그중에가장만히 로동자를쓰고잇는데는 장진수전공사장(長津水電工事場)으로 종업로동자가 삼천인데 일일평균임금이나되며 공장, 공사장의로동자를합하면 실로사만사천칠백여명이라는 로동자가잇는데 불경기에 각지에서 다수로동자가 운집한함남도는 방금로동자그대로의 로동왕국을 일우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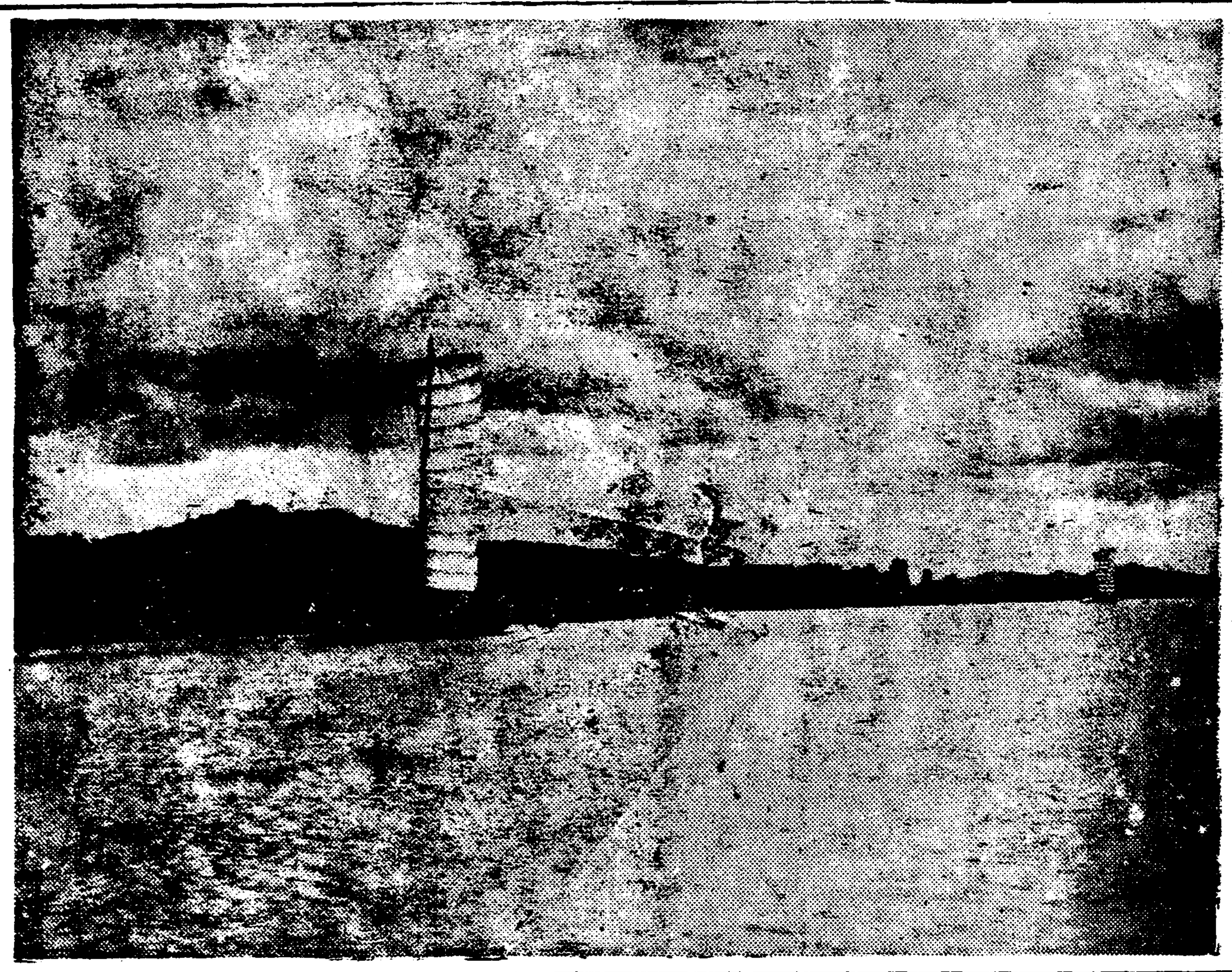
回甲記念으로 金五百圓喜捨 各社會團體에

【江西】 평남강서군쌍룡면회담리(會談里) 박용삼(朴用三)씨는 지난이십일에 회갑연을 열고 이를기념키위하야 평안각사회단체에 금오백원을 아래와가티 기부하엿다는데 씨는 자수성가한 독지가로서 시재칠백여석추수를 밧는 그다지부유치안흔 정도로 이가티 회사한것으로보아 평소부터 이러한포부가 잇섯슴을 엿볼수 잇다하며 기부바든측에서는 씨의회사에 감사의경의를 표한다하며 당일에는 각계인사를 초청하여 성대한회갑연이 잇섯다 한다 ▲雙龍公普校金百圓 ▲雙岩面金五十圓 ▲帶小學校金四十圓 ▲消防組金四十圓 ▲農民社金三十圓 ▲射布契金三十圓

水組排水溝未備 四十戶浸水危機

元忠里住民二十餘名이結束 水組當局에殺到陳情

【咸興】 말성만흔 함흥수조(咸興水組)에 또한건―지난이십륙일오전여덜시경 함흥수리조합에는 함주군천서면원충리(川西面元忠里)주민 이십여명이 살도하야 해동리부근까지 개답(開畓)하고도 완전한 배수구(排水溝)를 설치하지안엇슴으로 가옥사십호가 침수의 위험에 다달으고 잇다고 근네시간동안이나 야료를 거듭하다가 돌아갓는데 그들의 진정내용을 들으면 전긔원충리(元忠里)는 본래부터 저습(低濕)한 동리로서 지난소화칠년에도 함흥수조에서 부근을 개답(開畓)하다가 동리에 물이 침수하야 중지하엿든것인바 금번에 역시전과다름업시 배수구의 완전한 시설도 말하지안코 동리서편의 약이만여평의 개답을시작하야 어미 삼분의일가량이나 공사를필하고잇는데 만일 이공사를 전부하게되면 전번과 가티 동리사십호가 침수될것이므로 위험을 면하도록 해달라고 진정한것이라 한다



◇…大同江의初夏風景―順風에 돗을달고

平壤支局後援 洋裁縫講習會 六月一日부터六日間

【平壤】 평양녀자기예학원(女子技藝學院)에서는 본사평양지국 후원미테서 륙월일일부터 륙일간 평양긔독교청년회관에서 양재봉강습회(洋裁縫講習會)를 개최키로되여 준비에 밧브다. 강사는 사계의 권위자 박순례(朴順禮)녀사인데 동녀사는 동경문화재봉학교출신이다. 강습생의 정원은 오십명, 강습시간은 오전열시부터 오후두시까지이며 강습과목은 와이샤쓰 넥타이 남녀소아복 부인여름옷 신식양재봉의 수종목이 잇다. 강습료는 일원, 오월 삼십일 정오까지 녀자 기예학원(電話 一六五三番)림(林)미싱상회 동명서관(東明書館)주단부에 신청하면 조컷다한다 차저보기어렵고 맛나기어려운 긔회가드문 이회합에 다수참가하며 현대식 재봉술(裁縫術)도 조흘것인데 특히 신창리(新倉里)미싱상회에서 이강습회에 만흔 희생으로 봉사를 하기로 되엿다한다

長淵의牛市場 新茂洞으로移轉

【長淵】 장연읍내는 날로 발전되하고 잇는터인데 종래 장연읍시장은 황해도의 굴지하는 대시장이나 일정한 시설이 업시도로편에서장을 보앗섯는데 일반 상민층은 물론 시민의 불편이 적지안헛섯는바 장연면(長淵面)에서는 오래동안 숙망중이든터에 읍동리우시장을 신무동(新茂洞)으로 이전키로 결정한후 지를 매수하여 시장을이전케하얏다 당지시민은 다음과가티 자진기부하엿다는데 우시장이전에따라서 전우시장으로 미국경을 이전하고 종래의 우회리시장으로 이전을 이전하엿는데 [illegible] 한다

牛市場移轉費寄附者芳名 ▲[illegible]金二百圓 ▲[illegible]金百五十圓 元泰殷、金昌奎、金永燮、各七十圓 鄭元範六十圓、朴昌彬、朴永燮、李光濤、各五十圓 金[illegible] 宋[illegible]、朴泰秀、李[illegible]、各三十圓 黃昌奎、崔周燮、康[illegible]、宋德秀、各二十圓

明川郡屬의暴行!

納稅에誠意업다는口實로 良民을함부로毆打

【明川】 명천군 군속리종철(李鍾哲)(假名)은 지난일월경에 군내 하고면(下古面)에 세금독려차로 출장나왓다가 동면수동(同面水洞)김최길(金最吉)이란 청년에 납세고열이경과하도록 세금을 밧치지안는다하야 하고면사무소(下古面事務所)안에서 구타한사실로 일시의 사회적여론이 분분하엿더니 이제또다시 지난 이십일에 전긔리씨가 하고면에 출장나왓다가 동면 하평동(同面荷坪洞)최모(崔某)와 세금미납관계로 무삼말성이 생기엇다하야 군속으로 지방에 출장나와서 수차나 농촌양민을 구타하느니 말성을 일으키느니하야 사회적 여론이 비등하므로 긔자는 지난이십삼일 하고면에 출장중인 리씨를 방문하야 전긔사실을 물으니다음과가티말하얏다

▲李氏談 퍽미안합니다 저의실수로 군에 상서를자못한 금이 내게 나왓스나 최씨가 납세할것이니 가서 말음하시오하기로 하평에와서 최씨를 만나서 최씨말이 내방산것도 만코 세금밧치는것도 만허서 어느것이지 알수업소하기로그냥 면소에와서 잇는중 전지주 김씨가 하평에 와다가 전긔사실을 알고 세금은 어느쪽에서나 납세케하도록 하기위하야 사람을보내여 어느숍에 안진것을 오라하엿스나 오지안코 수삼차 보내엿스나 다리고 면소에와서 납세에 성의 업는것도 용서못하갯거든 사람을 수삼차보내엿슴에도 오지안코 하엿다

有吉公使狙擊犯 海州署取調開始

【海州】 귀보=수년전에 주중유길공사(駐中有吉公使)저격을 비롯하야 가지가지의 테로사건에관련된사상범 ▲黃海道安岳郡銀紅面上江里 吳冕稙(三) ▲平北江界郡文玉面文玉里 鄭[illegible](三) ▲平南平壤府敬齋里 金勝昊(三) 세명이 금번상해공부국경찰(上海工部局警察)의손에 체포되여 지난이십사일 입항하는평안환(平安丸)으로 인천(仁川)에 상륙하야 황해도경찰부로 압송되엿다함은 긔보한바와 갓거니와 황해도경찰부에서는 해주서(海州署)에 인치하고 방금고등과 특고주임(特高主任)죽환(竹丸)경부의손으로 엄중취조중이다 사건의내용을 드르면 전긔유길공사저격사건의 주범격인 오면직은 명치신상어면에 안악양산학교(安岳楊山學校)를 맛치고 고향에서 면리원으로잇다가 대정십년경(大正十年頃) 상해로건너가서 독립운동에 투신하야 중요 간부로서 활동하엿스며 적극투쟁을 주장하든 [illegible]

被檢以來三年만에 "共盟"事件豫審終結

被告玄春逢外三十六名으로

檄文撒布가檢擧端緒

【淸津】 소화팔년에 함경북도일대를 적화하려든 세칭 공산주의자동맹사건의 주범 현춘봉(玄春逢)(三一)외 삼십륙명은 소화구년 십일월중에 청진경찰서에 검거되야취조를마치고 청진지방법원 예심에 회부되여 취조를 밧는바 지난이십오일에야 예심이 종결되여 동법원공판에 회부되엿는데 그사건의 내용을 드르면 다음과갓다 본사건의 주인공인 현춘봉은 막사과 공산대학을 졸업하고 소화오년 삼월에는 조선공산당만주총국 선전부장으로 간도에서 활동하다가 경사관원에게 검거되야 경성에서 징역사년을 밧고나와 즉시 북선으로와서 적색운동을 지도하든중 전긔와가티 검거된것인데 그들은 대중획득보다 지도자 양성의 급무를 각오하고 동지를 규합하야 지도자 양성에 전력을 경주하는 동시에 소화팔년십일월에는 시내 수남동 모처에다 지하실을 파고 그곳에서 전함북로동운동자 대표대회를 개최하고 각지에 격문을 산포하엿든것이라 한다 소화구년 삼월에 [illegible] 신일명사임업사에 진을 중심으로 라진, 웅기, 어대진, 성진등 북조선의 중요공장지대에다가 파괴한 격문을산포하고

體育事業에邁進 新義州體育會의活躍

陣容을一新改革

【新義州】 신의주에 잇서서 조선인측으로 가장 큰 조직체인 신의주체육회는 소화칠년 창립이래 매년에 한번식 각회(脚戱)와 추천(秋千)대회를 열엇을뿐으로 아모활동이업시 체육사업에 힘을 들이지아니하야 실로 유명무실한 상태로 지나오든바 금번초부터 조직을 새로히하야 운동장문제를 해결하는일방 각종경기지도(競技指導)와 후원에 진력하여 철마인구를 포용하는 국경도시의 체육회의 면목을세우라고 계획중이든바 지난이십사일오후녀시 부내 락창하씨사무실에서 림시 총회를열고 역원을 개선하고 이십오일 오후여덜시 동사무실에서 리사회를열어 각부서를결정한후 사업계획에들어가 만장일치로 중앙운동장을 [illegible] 든시민운동회를 혁신 제일회시업으로 개최하기로결정하고 각종체육사업에 대한 토의가잇슨 後 동일두시에 폐회하엿다한다

◇新任役員▼會長 卓昌河 副會長 鄭元燮 理事▼金壽瑞 蔡廷根 朴龍水 張龍浩 趙得鉉 孫斗星 李敏奎 蔡廷弼 劉濟順 金履洙 高有瑞 金洪濟 金明奎 李德奎 金承鉉 崔顯周 崔昌彬 金基淳 李熙燮 高秉吉 金義明 崔光彬 ▲庶務部長 孫斗星 部員 金[illegible] 張龍浩 姜永俊 ▲運動部長 劉濟順 部員 蔡廷根 李德奎 崔永植 鄭鶴彬 ▲宣傳部長 金明奎 部員 金洪濟 李喜悅 朱鳳成 ▲財政部長 朴龍水 部員 張龍浩 朴泰根 朴昌伯

海金剛의一部名勝 國島探勝團募集

本報通川支局主催로

【通川】 천하절승금강산의일부인 해금강국도(國島)를 본보통천 지국의 주최로 오는유월칠일을 기하야 탐승을 하게되엿는데 국도는 총석정(叢石亭)에서 한십리내외의바다가운대에 잇는섬이다 이섬은 바다가운대에 잇기때문에 경개절승한 명승지인바 일반은이런 긔회를 일치말고 만히참가하기를바란다고한다

豫防協會發會式

【宣川】 전조선적으로 결핵예방균 박멸운동은 방금 맹렬히전개되고잇는바 협병 결핵의도시라는 선천에서도 이취지와개회에의하야 지난 이십일오후한시에 도위생과과장이하 관공서원과 각계유지백여명이 참집하야 성대한발회식을거행하엿다한다

農漁村의主食物 滿粟의繼續入荷

五月中으로二萬七百餘袋(元山)

그들의生活相反證

【元山】 해마다 피폐하여가는농촌과 어촌면의 주식물이 되여 잇는만주속(滿洲粟)은 근년소비층의격증으로말미암아 루진적인 수입증가를 제시하여 원산상업계의 무역품으로 중요한지위를 점유하고잇는데 농어산촌의 축적과 오지읍에는 원산부두의이구내는 배치지다시피 적치되어그수가 실로놀라울만한데 오월초순으로부터 지난이십오일까지의 차편으로 이십삼차(車)량의오여대(袋)씩들이 [illegible] 일만이천이백칠십여대 합계이만칠백여대로서 입하되엿다 그런데 금월초순 원산각창고에잇는 만주속은 삼만대 유예이하로서 새로 입하된만주속을 합하여보면 오만오천여대에 달하는데 현재 재고품만 삼만여대에 지나지 안코 이만오천오대가량은 벌서각지의 농어촌으로 실려 갓다고한다 그런데 그 만주속수용에는 기장(?)의값을 정하고 엿다는데 중요과 가장의 가격의차는 겨우 어십전에 불과하지마는 작년부터 이기장의 소비량이 점점증가하고잇서 단일전이라도 저렴한 식료를 요구하는현상임으로 이로써 더더히 농어산촌의 경제적전형과 그들의 비참한 생활의처지를 반증하는것을 알수잇다고하는데 이만주속의향하는곳은 대부분 강원도 해안지대와 함흥오지(咸興奧地)와 특히 신흥(新興)장진(長津)방면으로 다수히 출하된다고한다

平壤의結核患者 年復年增加趨勢

全患者의三分之一이結核性

道立醫院窓口에나타난數字

【平壤】 평양도립의원 내과창구에비친 망국병결핵환자의 수효는어떠한가?

외래환자의 삼분의일은 결핵으로 이경향은 년년증가하고잇슬뿐아니라 악성으로변하고잇다

소화구년도통계에의하면 각과의결핵성환자는 삼천팔백명으로 소아과(小兒科)에가장만히 일천오백명이발견되엿다

결핵환자의 병령을따저보면 이십부터 삼십까지가 가장만히 반수 구백오십팔명이반 그중에서 결핵성은 입원자 이백삼십오례오 만흔것은 호흡긔병으로 입원환자 삼백칠십일명 외래환자이천사백칠십일명 [illegible] 수어상용잡복하여 인생의장년기에 가장만흔현상으로 크게우려된다고한다

도작년도에 평양도립의원 문을통과한 입원환자 삼천삼백사명 외래환자이만칠천일백일십팔명 합계삼만사백사십이명중에서 [illegible]

石州體育會定總

【江界】 강계석주체육회(石州體育會)제삼회정기총회는 지난이십사일오후한시 천도교당(天道敎堂)내에서 회장 김중수(金[illegible])씨사회로 개회하야 회원점명 회록랑독 회계보고 전년도사업보고가 잇슨후 임원개선을하야 다음과가티 당선되엿다 [illegible]

濟州에서만보는 海女漁組統制

八個의組合을丸合

【光州】 라도에서는 볼수업는 제주도(濟州島)해녀들로 조직된해녀어업조합이 제주도에서만도팔개소가되엿는데 상호련락이 되지못하야 종종의 불편을 보게되든바 금번에 대동단결 합동하기로되야 준비중이라는데 그것이 실현되면 조선에 유일한녀군(女軍)의 어업조합으로 그들의 생업에 종사하야 매년만원이란 거액을 그들의 손으로서 자바내고잇다한다

鎭永驛附近에서 又復汽車殺人

【鎭永】 저달이십오일에 진주행 제이백십삼호긔차가 진영역부근에서 통과하는 사람을 륵살하고 만일개월만인 오월이십오일에 또다시 륵살사건이 발생되엿다 ―오전팔시사십삼분 진영역착 제이백사십삼렬차가 진영역부근여래리(余來里)앞을 진행할때에 일본내지인한명이 갈려 죽엇는데 그는 진영리(進永里)에 거주하는 양복공(洋服工) [illegible](三○)으로 평생에 술마시기를 조와하야 수년전에 그안해와 리혼한후 남녀실파세되든 아들과 단둘이 살면서 생활은 풍족지못하나 별노난도업고 부자간 의는도마저서 염세증(厭世症)을 일으킬만한 원인도 별노업스며 그날아침에도 일즉이 두곳에서나 술을 마시고 일하러 나갓다가 도라오는길에 그와가티 참혹한 최후를 일우엇는데 이에대하야 특살과자살설이 구구하나 목격자의 말에의하야 자살설이농후하다는바 그원인은 목하불명하다고한다

全濟州對抗 競技戰盛況

【濟州】 귀보=본보제주지국주최의 제삼회전제주축구대회(第三回全濟州蹴球大會)와 정구대회는 지난이십사일에 청구공원에서 성황리에 [illegible] 대항경기대회(對抗競技大會)는 예정과가티 거행하얏는데 이회연승하얏다 새로조직된 [illegible] 가 결승에서 백합하고 [illegible]에서 우승하얏는데 만장의 갈채를 밧엇다한다

◇寫眞…優勝旗授與式光景

釋迦誕生祭擧行

【寧邊】 당지의 불교포교소에서는 오는 이십팔일 석가탄생기념제(釋迦誕生記念祭)를 거행한다는데 금번에는 특히동포교소가 대본산금룡사(大本山金龍寺)로부터 묘향산(妙香山)보현사(普賢寺)에 속하게된 기념식도 아울러거행하리라는대 여흥으로 긔행렬과 제등행렬도 거행하며 특히포교사 김진섭(金震燮)씨의 강연도 잇스리라한다

端午節日을期해 陸上競技大會

【安東縣】 안동현 조선인체육회에서는 오는단오절일(端午節日)을 리용하야 안동현 육도구 운동장에서 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한다는데 [illegible] 경기를하고 [illegible] 거행하리라 한다

海州市民運動盛況

【海州】 해주시민대운동회(市民大運動會)는 지난이십사일 해주공립보통학교운동장에서 해주상공협회(海州商工協會)주최로 열리엇는바 당일은 일요일이엿든관계도잇서 무려수천공중이 모혀들어 자못성황리에 유쾌한하로를 보내엿다한다

雨量過多關係로 南海에麥凶難免

全郡內에서四萬餘石減收豫想

麥嶺期의農民極不安

【南海】 남해의보리는 풍작상수량상 조선에서 제일이다 그런대 금년은 일은봄부터 비가만히와서 맥작(麥作)은 매우내려하야오든바 밧주고인 오월중은 일층더 비가계속한바 [illegible] 풍흉은 풍년을면치 못하리라고하여 일반농민은 크게불안중에 잇다 이앞으로 천후가순조러워도 전군내에 사만석은 감소될것이라한다 피해농민에게 구제한다는데 동의창제도와 저당금이 현재사만오천원인바 창고가 준공되면 꼭 식량자시 저장하여 두리라하는데 일반은 [illegible] 구제해야라하여 크게주목하고잇다한다

地方人事

▲朱泰民氏(咸南道警察部)安東縣新任 人事次本報安東支局來訪 ▲黃[illegible]氏(咸南道地方課技手)同上 ▲安武官夫氏(前平壤府[illegible])人事次本報平壤支局來訪 ▲河崎[illegible]氏(安東海關長)[illegible]人事次本社安東支局來訪

貧民救濟機關으로 義倉制度를實施

倉庫新築近近着工

【安東縣】 안동현정곡에서는 변이 각구중에잇는 빈민구제책으로 의창제도(義倉制度)를 실시키로되여 준비중이든바 총공비 칠천오백원으로 륙도구중흥진(六道溝中興鎭)에 창고를건축키로되여 지난이십오일에착공하여 오는 칠월중에 준공되리라는데 방법은 지주층에서 수확고팔부(八分)를징수하여 저장하엿다가 [illegible]

郵便物橫領한 郵便所員公判

被告事實全部是認

【元山】 금년일월경이래 배달의직무를 망각하고 배달할 서적잡지등속을 배달치안코 십여건이나 자기집에가저다가 두고 읽은 강원도통천군고저우편소(庫底郵便所)배달부 김춘원(金春遠)(二一)에관한사건은 함흥지방법원원산지청공판에 회부되엿던바 지난 이십륙일 대서(大西)판사담임으로 제일회공판을 개정하엿는데 피고는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루루진술하며 참회하는바가 잇섯다한다

釋尊祭日을期해 脚戱大運動會

釋王寺飮食店組合主催

【安邊】 함남안변군 석왕사(咸南大本山釋王寺)에서는 금이십팔일(음사월팔일)에 석존제(釋尊祭)를 성대히 거행키위하야 방금준비에 대분망중인데 석왕사음식점조합(釋王寺飮食店組合)에서는 사면에서 모혀드는 다수한 관람객들에게 위안과 쾌감을 한층더도두기위하야 석왕사번영회(釋王寺繁榮會)의 후원을 어더가지고 동이십구, 삼십량일간 신록이 한창무르녹은 사긔리운동장(沙器里運動場)에서 현상각희대운동회(懸賞脚戱大運動會)를 개최한다는바 동경과 상품은 다음과갓다하며 당일에는 여흥으로 소인극(素人劇)가장행렬(假裝行列)까지 잇게되엇슴으로 성황은 지금부터 예긔할수잇다고한다

◇賞品 一等金五十圓 二等金三十圓 三等金十圓 其他 各等賞品多數

載寧

全朝鮮自轉車大會

▲時日 五月三十、三十一兩日間
▲場所 載寧五成學校運動場
◇主催 載寧輪業會
◇後援 朝鮮日報載寧支局

光州

南朝鮮靑少年蹴球大會

▲時日 六月六、七兩日午前八時부터(雨天順延)
▲場所 光州公設球場
◇申請期日 六月四日까지
◇主催 朝鮮日報光州支局

水原

徐椿先生經濟講演

▲時日 五月三十日下午八時半
▲場所 水原公立普通學校講堂
◇主催 朝鮮日報水原支局

商工組合中央金庫
中小業者好影響
—經濟關係法解說

今年의 特別議會에서 商工組合中央金庫法案은 無事히 通過하엿다 商工省은 同時에 이 施行準備에 着手하엿슴으로 늦어도 八月上旬에는 施行勅令과 同時에 公布될것이다 이에 依하야 政府出資와 民間各組合의 出資로 그 完了되는대로 業務를 開始케되는 民間側의 出資는 [illegible] 關係官廳도 民間各組合이나 모도 各 [illegible]

[illegible]

需給不安關係로 米價가 繼續高價
淸算取引、正米、正租等一齊
◇…減穀氣分이 深刻

需給不安의 實情을 反映하야 需給不安人氣에 싸인 期米市場은 麥作凶作說과 相俟하야 依然히 新高價에 向하더니 二十七日前場에 至하야서는 仁川先限이 三十一圓大關門을 突破하야 昨年同期보다 三圓高이오 昭和三年九月七日의 高價를 上廻하고 昭和二年以來의 新高價를 示現하엿다 正米도 九仁三等米 三十圓二十錢으로 續騰하며 仁川正租銀坊主一等 一石은 九圓五毛를 突破하야 九錢五毛新高價이엇다

"重要產業統制法" 朝鮮에 適用不能
特殊的事情으로

城津의 朝鮮工場敷地를 選定키 爲하야 日本高周波重工業會長 砂田重政氏 同專務菊池秀三氏 一行은 廿七日午前七時四十五分에 入京하얏는데 如左히 말하얏다

重要產業統制法의 朝鮮適用은 議會에서 相當히 問題되엇스나 이것은 商工省方針으로서 實際는 實行할수잇슬지는 疑問이다 第一 產業統制라하나 統制經濟의 目標를 何處에 置할가가 先決問題로서 現狀대로 統制함은 어떠할가생각한다 特히 朝鮮과 如히 今後伸長코저하는 產業에 對하야 日本內地同樣의 統制를 延長함은 產業界의 現狀으로 보드라도 必要치 아니할 일이오 特히 日本의 大陸政策進行上으로 보아도 朝鮮이 그 根據地가 되기를 바란다 三菱의 茂山開發은 運輸能力關係로 容易치 안코나 이것도 一大統制下에 包含하야 總督府도 開發에 努力함이 可할것이다 한은 日本內地產業資本의 朝鮮進出을 不可能케하는 結果로되어 絕對로 禁物이다

◇

日本高周波의 朝鮮工場은 이로부터 現地를 見後 決定코저하나 國際스파이의 策動等이 잇슴으로 그런意味로는 城津等이 適當하다고 思한다 敷地가 決定되면 直時着工할터인데 完成은 來春으로서 五千키로의 電力을 使用하게되어 特殊鋼의 製鍊을 할 생각이다 東京의 北品川工場은 來月에 完成하고 五百키로의 電力을 使用하야 朝鮮의 原鑛을 製鍊하야 모리부덴을 만들 豫定이다 製品은 七月에 나올것이다

◇

[illegible] 一大計 [illegible] 日本의 [illegible]

깨솔린値上 箱五十錢
朝鮮도追隨決定

朝鮮內石油業者는 日本內地의 깨솔린值上이 二十六日의 會合에서 決定대로 六月一日부터 一箱에 五十錢을 引上決定하엿슴으로 이에 追隨하야 同率로 同時에 引上하기로 決定하엿다고

米自管案 實施協議
總督府에서開催

米穀自治管理案通過에 伴하는 朝鮮關係의 統制關係事務其他는 이미 農林省米穀統制關係에서 準備工作을 하는바 渡東中의 矢島農林局長과 山澤農產課長 石塚技師等도 歸任한뒤 總督府에서 大體六月中旬에 各道農務課長會議를 열고 米穀三大調查協議와 米穀統制組合設置大綱에 關한 各道協議會를 열기로되엿다고한다

米露銑鐵輸入
印度로代替計畫

【東京電話同盟】第二次日印會商의 對策으로서 日本綿業團體에서도 準備委員會를 組織하고 現在日印綿布協定의 改正意見을 求하고잇는데 鐵鋼國策研究會에서는 右商會를 有利히 導키爲하야 現在蘇聯邦及米國으로부터 輸入하는 銑鐵을 制限하고 印度銑鐵의 輸入增加를 圖하야 이에依하야 綿布輸入量을 擴大코저하는 案을 決定하고 第二次日印會商民間代表에 該案을 進言하얏다 現在印度銑鐵의 輸入은 年額七百萬圓인데 蘇聯邦、米國으로서의 銑鐵輸入을 이에 振替하면 年八千萬圓의 印度銑鐵을 輸入하기로 됨으로 第二次日印會商에서는 日本의 主張이 極有利히 展開되리라고한다

朝滿拓殖制令案
廿九日閣議決定

特別議會와 中央各方面에 鮮滿拓殖關係事項에 關하야 說明折衝키爲하야 渡東中이던 外事課事務官 嚴島四達三氏는 二十七日午前三時着歸任하엿는데 如左히말하얏다

鮮滿拓殖의 新會社는 法制局의 審議를 終了하고 二十六日閣議에서 正式決定될려이엇스나 議會會期延長으로 來二十九日閣議에서 附議決定될것이다 決定後勅裁를 經하야 六日頃에 公布될터인데 大體總裁는 政務總監 [illegible] 이 議會後에 正式交涉키로되엇슴으로 滿洲拓殖社長이 決定되고 第二 東京滿洲拓殖社長 [illegible] 名도 日本內地人으로 占하게될 것이다 議會의 意向은 자못 重視로 進하고 中央方面에서도 理解가 充分히 되어잇슴으로 七月初에는 創立될것이다

現銀千六百萬元 紐育向의積出
米中協定第一回分

【上海廿六日發同盟】中央銀行은 廿五日 現銀一千六百五十萬元을 紐育向積出하엿는데 이것은 米中協定에 依한 銀現貨賣却 第一回分이라고

"通商擁護法發動"
日本經濟聯盟協議

【東京電話電通】滿洲의 日本綿布、人絹等의 各關係營業者와 連하야 充分한 聯絡에 關하야 日本經濟聯盟에서는 二十六日 午後四時부터 丸內工業俱樂部에 緊急常任委員會를 開하고 對策에 對하야 協議한結果 日本政府가 滿洲에 對하야 通商擁護法의 發動을 하고저하는 極히 當然하고 妥當한 措置임으로 同會로서도 極力政府의 이方針을 支持하고 同法發動에 有效한 實績을 擧키爲하야 援助하기로 方針을 決定하얏다 更히 이 通商擁護法의 適用範圍其他 具體的運用方法에 關하야 羊毛、綿布、綿 [illegible] 하는 契機가되리라하야 期待를 내고잇다한다

日本綿布輸出減
八億五千餘萬碼
比前年同期九千餘萬碼減

【東京電話同盟】綿織布同業會調查 一月以後 四月에 至한 日本綿布輸出總量은 八億五千七百二十萬四千六百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九千二百四十八萬九千三百二十二碼의 減退를 示하얏다하며 仕向地로보면 滿洲、香港、阿弗利加、大洋洲(埃及을除함)는 모다 增加되엇스나 英印、蘭印、埃及、中華民國等의 重要市場을 비롯하야 其他 亞細亞洲 北米 中米 南米 濠洲等의 各市場은 一齊히 減退되엇스며 就中 昨年度日本輸出綿布의 六割을 示한 亞細亞市場이 滿洲、香港을 除하고 모다 減退된것이 注目된다한다

鰮粕運賃
一元制延期
來年부터實施

朝鮮產鰮粕運賃의 一元制問題는 產地側一部荷主와 日本內地受商人中 從來比較的 地理的으로 有利한立場에 잇섯든 北陸關門方面의 受荷主側에서 反對한때문으로 結局 今年은 이것을 中止하고 來年度產品의 運賃交涉會 [illegible]

南鮮電氣合同
目下計畫進行中
社長井上遞信局長說

南鮮의 配電統制는 朝鮮送電會社의 設立 [illegible] 目下遞信局에서 [illegible] 의 統制計畫에 基하야 各電氣會社의 合同計畫을 進行中인데 今秋까지는 實現키로되엇다 이 合同成立後의 會社社長에는 現井上遞信局長이 就任될모양이라고한다

五分利付公債
借換의應募好成績

【東京電話商通】五分利公債의第二回 借換申請은 廿六日에 끗낫는데 約三億六千萬圓으로 豫想以上의 好成績이엇고 이에依하야 新三分半의 號中 五千三百萬圓은 日銀所持로하고 一般에 賣出치안키로되엇다고

漢銀特融償還
期限의再開延長說

漢城銀行의 日銀特融約七百萬圓은 昭和十二年末이 償還期限으로되엇는데 過般以來 堤 [illegible] 與 [illegible] 兩氏가 渡東하야 日銀其他關係方面과 折衝한바 七百萬圓中 三百五十萬圓은 無利子 그 남어지 半分은 二分의 利子임으로 그 償還方法의 變更은 [illegible] 期限의 再延長 [illegible] 모양이라고한다

朝鮮商議提出議案

六月中旬에 열닐 朝鮮商議에 提出된 各地商工議所의 提出議案은 如左하다

▲大邱商議=朝鮮總督府에서 速히 工藝指導所를 設置하기를 要望함

▲木浦商議=港灣의 海陸連絡施設의 完備를 要望함

▲仁川商議=對中貿易의 促進과 助長을 圖하기爲하야 北中重要地에 專任貿易關係機關의 施設을 要望함

春繭基準 價格協定
三十五掛程度說

春繭價基準協定은 來月上旬 總督府에서 行함을 豫定인데 大體現在의 絲價로 보면 三十四、五掛에 落着되리라고 보이는바 日本內地沼津의 初市勢가 來三十日開始되고 그 形勢를 製絲家側은 注視하고 이것을 보고서 態度를 決定할 方針이것갓다。 沼津初市勢는 三十九掛乃至四十掛로 보이며 例年의 日本內地와 朝鮮의 [illegible]

日濠貿易絕望
村井總領事情報內容

【東京電話同盟】濠洲政府의 關稅改正實施 影響에 關하야 二十六日 村井시드니 總領事로부터 外務省에 達한 情報에 依하면 濠洲의 日濠貿易關係者意見도 亦日本에 取하야 不利하다 日濠貿易의 將來는 가망이 업다는 [illegible] 大臣의 言明에도 不拘코 絕望視되는 事實이 明白하다 即

一、新關稅改正의 結果 日本綿布의 輸入은 事實上 不可能케되엇고 極少數의 小麥袋製造用綿布만 關稅가 從來대로 되엇스나 그 數量은 問題가 아니된다

一、濠洲政府當局은 輸許制度를 日本品에 對하야 無制限으로 [illegible]

羊毛買入 激減形勢
一致의膺懲工作

【東京電話同盟】濠洲政府의 日本 [illegible]

한다하나 如何히 數量輸入이 自由라도 新關稅에 依하야 日本商品에 高率關稅를 賦課하야 서는 事實上 그 輸入은 杜絕될 것이다

一、人絹은 新關稅의 結果 入絹을 減할것이 明白하다 濠洲政府는 人絹에 잇서는 日本品 이 米國品에 代할수잇다하나 米國品이라는 것은 人絹織物、細 루로이드 [illegible] 部米國品에 對할수잇드래도 그 全額은 全혀 問題가 안될것이다

米日爲替續騰

【京城廿六日發同盟】廿六日의 米日爲替는 前日에 比하야 [illegible]

▲東京爲替(二十七日)
對米 二十九弗二十五仙[illegible]
對英 一志二片[illegible]

▲大阪爲替(二十七日)
對米 二十九弗[illegible]
對英 一志二片[illegible]

永同郡서春蠶種
四千餘枚配付
比前年五分增加

【永同】忠北永同郡에서 今年度에 配付한 春蠶種은 總枚數四千二百七十枚로 昨年度에 比하면 二百六十一枚의 增加인바 今年은 桑樹도 例年에 比較하야 [illegible]

品防遏에奮起한 大阪商工會議所

[illegible] 의 第一要에 東京商工會議所를 비롯하야 全國各會議所가 一致하야 對濠膺懲에 起하얏고 更히 全國輸出業者日本經濟聯盟도 起하야 强力한 反對運動을 하야 議會에서 政府의 言明과 相俟하야 通商擁護法 發動은 必至로 보이는데 羊毛工業會는 日本年度 濠毛買付를 三分一程度로 減하고 將來는 買付中止로 向키를 決定하얏다 毛織工業會에서는 從來의 濠毛依存을 避하고 南阿南米中國수레를 하이바等의 各種品質其他에 依하야 製品의 多角化方向에 進하자는 意見이 有力化하얏다한다

經濟形勢

取引停止 (五月二十七日)
經濟界消息

▲京城府上[illegible]町二〇七番地 [illegible]

○鐵道協會總會=[定期總會]는 六日午後四時부터 朝鮮호텔에서 열고 會務報告後 議事에 드러가 評議員補選 六名選任을 끗내이고 監事二名의 重任을 議事終了後 講演이잇고 午後七時부터 懇親會에 드러갓다가 午後九時에 散會하엿다고

○京春鐵道發起人會=三十日午後三時부터 朝鮮호텔에서 第二十三回 定期總會를 열기로되엿다

○京春鐵道役員=[內定]京春鐵道의 創立計劃은 來月上旬發起人會의 開催를 기다려 具體化키로되엇스나 그 內定한 重役陣은 아래와 갓다

▲取締役社長 牛島省三
▲專務取締役 [illegible]
▲取締役支配人 伊藤 旺
그中 鹽川氏는 現殖銀檢査役 伊藤氏는 元山鐵道事務所長이든사람이라고

今日財界 (廿七日)

◆米	仁川期米 先限	三十一圓[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正米(仁川)三等	一石 [illegible]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株	日產	[illegible]	
	東新	[illegible]	
	大阪	[illegible]	
◆綿	大阪綿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綿糸	[illegible]	

壓迫難避情勢

[illegible] 閉會後의 市勢가 早純한 押 [illegible] 이엇는바 期米는 [illegible] 好材料로 二十日後아래 五錢으로 다시 [illegible] 이라는 [illegible] 大阪人氣를 [illegible]

市場六感

(株)……議會는 閉幕되엇스나 市勢는 局面打開難◆東新百三十二、三圓에서 어듸로 가느냐 强氣이 隱匿◆擬氣로 적어도 百四十一、二圓에까지는 갈것이라하고◆弱氣는 別로 上伸치 못하고 百十九圓三十錢을 깨트리고 말것이라主張◆무엇이 動機가 되고 材料가 될지는 모르는 東新의 反撥力이 鈍한點은 자미업는點◆買氣悲觀은 一巡된 材料라하나 今後가 實現되는 統制와 增稅의 具體案 [illegible]

(米)……三十一圓大關門은 昨月先限이 納會될때에 突破되고 本月末에는 三十一圓臺를 突破하엿다 來月同期에는 三十二圓을 突破?◆時日을 經合 사록 減穀의 氣分이 深刻할모양이오 中農以上의 賣惜은 더욱 堅固할모양이니 米價의 去益强할것을 可期◆그러나 近日의 人氣가 强하고도 市勢만은 比較的伸惱 此는 高價의 實警戒로 買手가 주저하게 되는 側의 大勢만은 어느時期까지 低落될條件이 업스니 買方針을 捨하지는 못할듯

期米 卅一圓臺 突破

前場 一圓突破 昨後場阪地三十三圓十六錢止와 共히 三十圓九十四錢에 寄合止한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三圓二十二錢의 四丁高를 報하고 三十圓九十六錢인 二丁高로 寄合始한後 阪地二十一錢으로 四錢까지 返戾함을 맞아 金太의 買進으로 九十九錢의 新高價를 내고 强調하야 阪地二十二錢으로 反弛함에도 買氣依然旺盛하야 三十一圓臺의 三番同價로 結局〇一錢에 寄合止하엿다

後場飛騰 後場은 買氣益加하야 三十一圓七錢에 六丁高로 始場後 二節十七錢에 飛上하고 十五、六錢으로 六節十八錢이 잇고 二十錢最高價에 止場하다

減穀氣分濃厚
一層高價期待

時日을 經할 사록 二年凶作의 減穀의 度를 加하게 되어 本色을 如實히 綻露할 모양이다 去三月末 에 二十九圓 二、三十錢臺의 市勢가 四月末에는 二十九圓九十錢臺를 中心으로 往來하엿고 本月末에는 三十一圓 大關門을 突破하얏다 此가 即 減穀의 氣分이 濃厚함을 侯로한이데 압으로 六、七、八月에 入하는때는 又 一層 高價일것을 足히 알수잇다 朝鮮農家의 在米는 昨年同期보다 오히려 潤澤하다고 할수잇스나 그러나 本年은 農家賣惜方針이 例年보다 더욱 鞏固할뿐아니라 昨今兩年의 米價高로 米穀의 惠澤을 바더 農村의 景氣가 圓滑한만큼 低價에는 絕對賣却치 안코 高米價時代의 到來만을 期待하고 잇다 그러나 市勢의 位置가 昨年同期보다 三圓程度나 高할뿐 아니라 最高公定價格에 接近한만치 買方도 勝入的行動을 加하지 안음으로 近日市勢는 似而非的 形勢로 人氣가 强하고도 伸惱의 狀態를 呈할뿐이다

株式 不勢이나 下澁

商況 (廿七日)

○製絲家本位?로 또 되기쉬운 春繭基準價格協定이 또 머지 안흔 모양
○작구 올로다 大衆의 生活苦 益益
○朝鮮石油販賣戰線 混亂 益益
○獨占會社 이지만 朝鮮石油 漫然 業績不振의 形勢

前場保合 前場은 大阪長期當限納會로 長時間立會이엇는데 短期는 低迷로 閑散保合이엇스나 即 昨後引에比하야 東新二十錢高인 百三十二圓六十錢 日產百五十一圓十七錢 鐘新二十六圓 朝七十三圓이잇섯다

▲東新 三三〇(寄) 三四 三二 三三 三三 [illegible]

後場徵波 後場은 東新이 百三十一圓八十錢에까지 떠러젓다가 二圓四十錢、大新七十四圓丁、鐘新百五十一圓四十錢 日產七十二圓二十錢 日產新二十圓九十錢 朝取六十八圓五十錢에 各大引

東新은賣上?

二、二六事件으로 投賣家는 深刻한 動搖을 바더서 警戒를 不解하는 이오 特別議會도 膨大한 豫算을 通過시히고 重要法案을 一萬千里로 可決하고서 廿七日 閉院式을 하게되엇스나 議會後 一高期 [illegible]

實物前場取引

▲日新 아루미四二、八〇 ▲東新 六五、〇〇 ▲新鐘 二、二〇 ▲東電 一八〇 ▲北樺太鑛業 二〇、〇〇 ▲滿洲鑛業 二一、二〇 ▲朝鮮窒素 二一、六〇 ▲人 造羊毛六八、三〇(取引高百八十株)

東京國債市場

二回四分利 一〇二、六五
第一回四分利 一九八、二〇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illegible]	[illegible]
中限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堂島前場强調

【大阪電話】苗板發育을 念慮하던 際에 各地의 低溫繼續으로 產地의 態度가 去益强하고 또來月初의 好買行을 豫想하고잇는만큼 一般買氣가 依復되며 田中貞이 買進함으로 市勢一段引締되는 形勢이엇다

▲賣方 中貞 東京側乘換地場乘換田 ▲買方 上楠 地場朝鮮側乘換株式側

各地正米

京城少堅
淸算高移로 實需側의 買氣가 蘇生하야 五錢高唱인 丸仁三等三十圓二十錢 四等二十九圓九十錢 一等白米三十二圓丁

仁川强堅
定期의 引締步調를 反하고 移出向에 適量의 準備가 잇서 品買가 殖五錢高唱이엇다 ㊁三等三十圓二十錢 四等二十九圓九十錢 ㊀一等白米三十二圓五十五錢

釜山引締
買物一巡으로 大口買가 업고 繼續하야 薄賣買이나 定期의 好調를 和하야 唱은 十錢引締이오 取引高七六二叺、㊁三等三〇圓十錢四等二九圓八十錢 一等白米三十二圓六八錢

大邱昂進
產地의 强調와 期 [illegible]

群山昂騰

[illegible] 等白米三十一圓二十五錢

木浦强含

產地賣行의 [illegible] 十錢引締이오 [illegible] 買氣가 [illegible] 四等三〇、四〇 一等白米 [illegible]

豐苗는樂觀! 麥作은凶作?

[illegible] 本年에 豐作은 樂觀되고 麥作은 凶作이라는 [illegible] 麥作은 不良하야 本年은 何等 等作의 氣分이 잇다 [illegible] 東北地方도 一關等凶外 低溫으로 苗板의 發育이 不良하야 一部 凶作을 云云하며 日本內地의 [illegible]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株式 米期 ㊀ 柳來楨商店 朝取取引員 [illegible] 電話[illegible]

◆朝取短期 (廿七日)

銘柄	前寄	前引	後寄	後引
朝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北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算定代引日步◆ [illegible]

◆朝取短期實賣高◆ 合計 七·[illegible] 累計 一·三[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朝取期米◆ (廿七日)

	當限	中限	先限
前場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取期米實賣高◆ 本期總計 七·一〇一·〇〇〇石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釜山 大邱 群山 木浦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日本米上 三三·三〇中 三一·一〇下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日本內地 玄米 白米 朝鮮 玄米 白米 臺灣 玄米 白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神戶 下關 名古屋 [illegible]

◆各地正租市勢◆(單位錢) 地名 種類 一等 二等 三等 等外
京城 銀坊主 [illegible]
仁川 銀坊主 [illegible]
群山 銀坊主 [illegible]
木浦 陸羽 [illegible]
大邱 穀良都 [illegible]
鎭南浦 陸羽 [illegible]
新義州 陸羽 [illegible]
元山 龜尾 [illegible]
咸興 陸羽 [illegible]
馬山 穀良都 [illegible]
平壤 陸羽 [illegible]
釜山 穀良都 [illegible]

◆大阪綿糸◆ (廿七日) 五月 六月 七月 八月 九月 十月 十一月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海外經濟◆ (廿七日) 倫敦銀塊 紐育銀塊 [illegible]

◆朝鮮銀行勢◆ [illegible]

◆日本銀行勢◆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東京市中純金價◆ 一五·四〇 [illegible]

◆京城市中金塊價◆ [illegible]

◆京城正米◆ 穀 (廿七日)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鹽油乾脯◆ [illegible]

◆鐵物乾肉◆ [illegible]

◆海苔乾貝◆ [illegible]

◆日本海產市勢◆ [illegible]

◆滿洲商品◆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